

문화만개 | 여름호 | vol. 07 | 2018. 07

문화 만개

여름호

vol. 07
2018. 07



Dalseo Culture Foundation

www.dscf.or.kr

 달서문화재단
DALSEO CULTURE FOUNDATION

2018 청소년 문화예술 진로특강

문화예술로 찾아 떠나는 '나' 찾기

꿈소 뮤지컬



7.24 tue
박준 (시인)
문학의 길, 예술가의 삶

7.26 thu
호조 (카카오프렌즈 캐릭터 디자이너)
만인의 캐릭터, 만인의 디자이너

7.31 tue
안은미 (현대무용가)
나를 찾는 움직임 '안은미의 몸 이야기'

8.2 thu
반이정 (미술평론가)
예술로 살아남기 (동시대미술위주)



2018
7.24 tue _ 8.2 thu
pm 2:00 [4일간]

웃는얼굴아트센터 와룡홀



주최주관 _ 달서문화재단
웃는얼굴아트센터
접수 _ 7. 21일부터 선착순
대상 _ 만11세 이상 청소년 및 가족
참가비 _ 3천원
문의 _ 053)584.8721-2

2018

JAZZ IN DAEGU FESTIVAL

08. 18 Sat
- 08. 19 Sun

2018 재즈인대구페스티벌

VENUE | 웃는얼굴 아트센터

LINE UP

08. 18. SAT.
- | | |
|---|------------------------------|
| Djin Radé with Jeongse Hong Project
짐 라데 with 홍정수 프로젝트
 아프리카 처드 x 한국 | Besquitos
버스키토스
 네덜란드 |
| Buyoung Lee Duo With Youngjoo Song
이부영 듀오 with 송영주
 한국 | KL3TH
클라틴
 북성부르크 |
08. 19. SUN.
- | | |
|-------------------------|---|
| FUNMQ
에프유엠큐
 독일 | Machado-Baez Duo
마사도 바에즈 듀오
 프랑스 |
| Aurora
아우로라
 스페인 | Very Cool People
베리 쿨 피플
 라트비아 |

주최 | 달서문화재단 웃는얼굴아트센터 주관 | 달서문화재단 웃는얼굴아트센터 Artkiki

후원 | 인국문화재단, YAMAHA, musicLX

역사 속 영웅들의 이야기가 뮤지컬로 재탄생된다

Herbes

히어로즈

일시 2018. 7. 20. 금 오후 7:30

장소 웃는얼굴아트센터 외룡홀

주최 (재)달서문화재단

문의 053)584-9711~2

등장인물 : 드라마 클래스 참가자들

정민경(지현) 김태형(민준) 김창환(고종) 유용재(명성황후)
서재성(안중근) 박지영(유관순) 권준모(한용훈)

제작진

감독 - 안성국 연출 - 최은미 대본 - 이효정

스텝 - 조명 : 채승훈, 박재민 음향 : 이현목, 이광진

무대 : 김태완 영상 : 강나경

드라마 클래스는

(재)달서문화재단이 제시하는 일상 속 문화예술 나눔 프로그램입니다.

문의사항 : 053)584-9711~2 / www.dscf.or.kr

일상의 문화로 이뤄가는 '보다 나은 달서'

존경하는 달서주민 여러분!

여름의 길목에서 문화만개를 통해 인사드립니다.

민선 7기를 맞아 달서구는

'새롭게 도약하는 희망달서' 비전 아래 '활기찬 생활문화'를 지표로
지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문화 복지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일상의 곳곳을 살아있는 문화의 현장으로 여기며,

풍요로운 문화정책으로 '보다 나은 달서'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생활문화예술의 저변확대도 함께 이뤄나가고자 합니다.

지역민의 삶 속에 스며드는 문화를 구현하기 위해,

예술인들과 지역민들의 예술 활동에 지원을 아끼지 않는

달서문화재단에서 일곱 번째 문화만개를 발간했습니다.

이번 여름호에는 드뷔시 서거 100주년을 맞아 '인상주의'를 특집으로 실었으며,

'우리 정원이 품은 천지인 정신', '어떻게 살다 어떻게 죽을 것인가'의 인문학 칼럼과
월드컵 개최지인 '공존의 도시 카잔' 등 다양한 분야의 칼럼 및 봄바람 콘서트,

청룡홀 재개관 공연, 달서가족문화센터 개소 등

달서구에서 펼쳐진 공연, 전시, 축제와 행사의 소식도 함께 담고 있습니다.

다채로운 문화 이야기와 함께 예술과 철학이 스며드는

문화만개에서 문화의 향기를 피워나가시기 바랍니다.

이 태 훈 (재)달서문화재단 이사장



Inside Culture 48.

| [트렌드] 할아버지의 낡은 시계_고선윤

| [영화] 심리적 상처와 사랑의 치유_정찬호

Arts & Artists 58.

| [공연] 2018 봄바람 콘서트
청룡홀 재개관 기념 대구시립예술단 초청공연

| [전시] 여성, 예술을 말하다

| [아카데미] 건축과 미술로 떠나는 세계도시여행

Grand Opening 70.

| 웃는얼굴아트센터 청룡홀 재개관하다

| 행복충전소 '달서가족문화센터' 개관

열매를 맺으며 76.

| 단신

문화를 쓰다 8.

| [인문학] 어떻게 살다 어떻게 죽어갈 것인가?_최재목

| [문화] 우리 정원이 품은 천지인(天地人) 정신_이성낙

| [World & Culture]
러시아의 고도 카잔(Kazan) 월드컵_박정곤

특집 인상주의 28.

| [음악] 인상주의 시작과 끝, 플로드 드뷔시_최훈락

| [미술관 기행]
인상주의 미술과 일본 우키요에 판화의 영향_김영동

| [여행] 파리의 골목_김형욱

목차

Contents

발행처 | (재)달서문화재단 053)684-9711
대구시 달서구 문화회관길 160(장기동) 웃는얼굴아트센터 별관 2F

발행인 | 이태훈

발행일 | 2018년 7월 6일

기획/편집 | 달서문화재단 문화정책실

편집장 | 김은주

편집위원 | 김미영, 최용석, 허정무, 고재령, 박영빈, 김경영, 김효진

편집디자인 | 밝은사람들 053)660-6600

2018년 VOL.7 비매품
ISSN 2384-373X

이 책에 실린 글과 그림은 서면 동의 없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
문화만개 구독을 원하시는 분은 달서문화재단 문화정책실로 신청바랍니다.





어떻게 살다 어떻게 죽어갈 것인가?

나무와 살다 나무에 묻힌 민병갈(칼 페리스 밀러)의 <천리포수목원>을 찾다

글 · 사진 최재목

08



Carl Ferris Miller

1921-2002

천리포수목원

‘무(無)의 ‘덤’

무덤은 한 인간의 지나간 시간의 흔적을 싸악 묻고 지워버린다. 망자는 살아서 꾸민 삶의 공간과 결별하고, 새로 꾸며진 죽음의 공간에서 살아간다. 무덤은 고요와 침묵, 무언으로 있다. 그러나 살아있는 자들을 통해서 자신에 대해 대신 말하도록 내버려 둔다. 그렇게 망자는 다시 쓰고 말하도록 뒤통하는 것이다.

무덤은 낡은 것들을 부정하고, 낫익었던 일들을 괄호로 묶어 지난 시공간과 결별, 부정하는 동시에 또 다른 차원에서 망자를 만나 긍정하도록 한다. 살아서 미처 살피지 못했거나 느끼지 못했던 그 사람의 삶은 다른 차원에서 의미가 살아나고 스토리텔링 된다. 이처럼 무덤은 ‘은폐-소거의 공간’인 동시에 ‘천명(闡明)-창조의 공간’이다. 그렇다. 죽은 자에게는 잊지 않고 기억을 해주게 하는 ‘추억과 기억의 장치’이고, 산 자에게는 죽은 자를 통해서 자신의 죽음을 생각하는 ‘전망과 성찰의 장치’이다.

죽은 자가 산 자를 불러 모으고, 산 자가 죽은 자를 호출하는 우리의 전통 무덤 형식은 반원의 봉분=‘곡선’, 수직의 비석=‘직선’으로 이루어진다. 봉분 위로는 하늘이 원형을, 아래로는 관이 사각형을 보여준다. 땅[地]이라는 자연으로 돌아가는 우리 전통의 토장(土葬)은 수장(水葬)·화장(火葬)·수상장(樹上葬)·조장(鳥葬) 등과 달리 천원지방(天圓地方) 즉 시간(←원형=천원)+공간(←사각형=지방)을 추상적 형태로 껴안고 있다. 물론 이런 기하학적 묘의 기획은 산 자들의 몫이나, 아름다운 산천에 상처를 만들고 심지어는 보기 싫은 흠집이 되기도 한다. 화장하여 수목장으로 만드는 추세가 자연스레 자리 잡는 것은 친환경적이며 바람직하다고 본다.

죽은 자는 말이 없다. 그를 말하는 자는 산 자들이다. 무덤은 그 사람이 차마 못다한 삶의 이야기를 산 자를 통하여 마저 다 털어놓고 얘기하며 완성케 하는 공간이다. 누구나 편히 볼 수 있는 ‘그 사람의’ 공개된-추상적 의미의 공간이다. 이래서 무덤은 살아있는 자들이 망자를 항상 만날 수 있도록 기획한 공공적 예술 공간이나 놀이 공간이라 해도 좋다. 어릴 적 나는 뒷동산 묘지의 잔디에서 얼마나 많이 뛰어 놀며 즐거워했던가. 봉분을 뛰어넘고, 비석에 올라타고 매달리며….

무덤은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무(無)에서 건져 올린 ‘덤’이다.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를 물을 수 있어야 한다.

<천리포수목원>의 민병갈 무덤을 찾다

스승인 무덤, 거기까지 가는 길을 미리 훤히 알고 있었던 사람이 있다. 삶을 바쳐 나무를 심었던, 귀화 미국인 민병갈(미국명 : 칼 페리스 밀러)이다. 그는 나무와 결혼했다. 평생 나무만을 자식처럼 키웠다.

나무는 한 곳에 어리석게 곧게 서서, 평생을 지낸다. 스스로 옮겨 다니지도 못한다. 그 자리에서 치열하게 산다. 말 그대로 우직(愚直)하다. 식물원의 식(植) 자는 나무 ‘목’에다 곧을 ‘직’ 자이다. 이 글자에서, 정직-충직-강직 등의 어휘에서 보는 ‘곧게 나아가는’ 인문적 상상력을 만난다. 하늘의 해와 달과 별, 땅의 높은 산과 평지의 ‘수많은’(=十) ‘눈들’(=目)이 쳐다보니 ‘감추고 숨길’(隱→ㄴ) 수 없어, 그냥 어리석고 착하게만 자라는 저 곧고 곧은[直] 나무들[木].

민병갈이 그랬다. 그의 생애는 그가 가꾼 수목원의 나무처럼 그곳에서 성장하고 번식했다. 그 흔적은 고스란히 '천리포수목원'이 되었다. 이 수목원은 민병갈의 삶을 간직한 타임캡슐이라 해도 좋다.

그는 죽어서도 자신이 사랑하던 나무 밑에 묻히길 원했다. 그의 뜻대로, 결국 그는 나무 밑에 묻혔다. 나는 민병갈이 일생을 바쳐 만든, 이 <천리포수목원>(정식 이름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천리포수목원>)이 궁금해졌다. 그곳을 찾고, 그가 묻힌 곳을 내 눈으로 보고 싶어졌다.

만리포에서 만난 '무량한 빛'

5월 중순, 햇살을 가르며, 대구에서 천리포수목원으로 가는 길은 멀다. 충남 태안의 만리포 해수욕장에 도착했을 때, 노을이 막 지기 시작하였다. 서해안의 낙조는 아름답다. 떨어지는 것, 사라지는 것이 어쩔 지경에도 곱고 찬란할 수 있을까. 반짝이는 은모래, 구구절절 애타는, 연서(戀書) 같은 노을. 그 위를 발랄하게 뛰노는 아이들, 연인들.

이 대목에 서면, 오래된 저 문주란의 '낙조'(1968년, 영화주제가)같은 애절한 노래는 차마 이해가 안 된다. "노을 지는 강물 위에 물새가 슬피 울면/강바람이 쓸쓸하게 물결 따라 불어오는데/언제까지나 영원토록 잊지 못할 그 사람/슬픈 사연에 슬픈 사연에 이 밤도 목이 메인다." 이제 '슬피~슬픈~목이 메인' 이런 아픔의 어휘들이 차츰 우리에게서 멀어져 갔으면 좋겠다. 무량 무량한 빛 때문에 우리가 살아 있다면, 무량광불(無量光佛)을 기리는 사람들의 마음처럼 빛은 곧 생명이고 수명이고 희망이거늘, 왜 낙조를 슬프다고 하던가.

몇 해 전, 네덜란드에 가족과 일 년을 머물 기회가 있었다. 여름 날, 덴하그(헤이그) 근처의 어느 바닷가로, 찬란한 일몰 구경을 간 적이 있다. 일몰이 마치 일출 같다는 착각. 커피를 마시며 해가 떨어지는 바다 속으로 눈길이 점점 빠져들며 웃음을 감추지 못하던 네덜란드 사람들. 그들에게 슬픈 일몰이 아니라 차라리 황홀한 일출인 듯 했다. 서쪽 바닷가에 발붙인 그들의 서넛은 곧 그들의 '극락정토(極樂淨土)'처럼 느껴졌다.

만리포도 그랬다. 서넛 하늘이 어찌면 저렇게 파사로울까. 햇살 반 물결 반의 해안을, 신발을 벗어두고, 검푸른 수평 속으로, 맨발로 걸어 들어간다. 맨발로, 내 몸을 바칠 각오로 그 빛의 바다에 들어선다.

"똑딱선 기적소리 젊은 꿈을 신고서/갈매기 노래하는 만리포라 내 사랑/그립고 안타까워 울던 밤아 안녕히/희망의 꽃구름도 동실동실 춤춘다~♪" 예전에 들던 '만리포 사랑'(1958년, 반야월 작사, 김교성 작곡, 박경원 노래)의 무대가 여기였다니. 슬쩍~, 준비해갔던 하모니카를 꺼내, 불어본다. 누가 들던 말든 '즉흥(卽興)에, '젊은 꿈....그립고 안타까움....안녕!' 이런 어휘들을 잠시 되새겨본다.

나무와 결혼, <천리포수목원>을 돌보다

미국 펜실베이니아 태생인 칼 페리스 밀러(Carl Ferris Miller, 1921~2002)는 1945년 미군 정보장교로 한국에 왔다가 1979년 민병갈(閔丙濤)이라는 이름으로 귀화했다. 아마도 밀러를 '민', 페리스를 '병', 갈을 '갈'로 옮겼다고 생각되는데, 특히 '갈'이란 한자는 물이 깊고 넓거나 맑다는 뜻이다.

어째서 그가 천리포로 왔을까. 내용은 이랬다. 1950년대 말 한국은행 고문직에 있을 때였다. 여름휴가 때면 으레 만리포 해수욕장을 찾았는데, 낙조에 큰 매력을 느꼈던 것 같다. 그런데 1962년 여름, 천리포에서 운명적인 일이 벌어졌다. 민병갈이 만리포를 찾았다가 이웃해 있는 천리포로 산책을 갔을 때였다. 마침 마을 노인으로부터 딸의 혼수비용이 필요하니 자신의 야산 6,000평을 사달라는 것이었다. 은행에 다니고 믿음직하여 청을 들어줄까 생각했던 탓일까. 의외의 부탁이지만 민병갈은 노인의 딱한 사정을 듣고 돕는 셈 치고 그것을 샀다. 그 야산 6,000평이 지금의 18만여 평 수목원을 이룬 단초였는데, 글썄, 당시 한 미국인이 땅을 샀다는 소문이 돌자 당시 가난했던 천리포 주민들이 들쭉였다. 땅 주인들이 여기저기서 자기 땅도 사 달라며 찾아와 졸라댔다. 그 이듬해부터 그는 황폐한 땅들을 조금씩 사들여, 1966년 말에 1만 9,000평, 1970년에는 드디어 천리포를 아담한 자연동산으로 꾸밀 각오를 한다. 이래서 우리나라 최초의 사립수목원이 탄생한다. 수목원장 민병갈은 1979년 한국인으로 귀화하여 2002년 81세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독신으로 살며, 이곳을 떠나지 않았다. 그는 나무와 결혼하여 살았고, 자식 대신 수많은 나무를 길렀다. 그게 혈육이었다. 그는 여행을 다니면서 국내 수목 가운데 희귀종과 자생종을 수집했다. 특히 '호랑가시나무, 목련, 단풍나무, 동백, 무궁화' 이 다섯 가지에 관심이 집중됐는데, 이 가운데 호랑가시나무와 목련을 가장 아꼈다 한다. 그가 수집한 목련나무의 경우, 무려 700여 종이라니, 놀랍다. 목련의 계절에, 700의 향기와 빛깔로 눈 떠는 무량한 생명을 만나고 싶다.

민병갈 사후, 식물원 측은 식물전공자나 후원자에게만 공개해왔지만, 2009년 생태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일반인에도 개방했다. 물론 전부는 아니고 천리포수목원이 소유한 7개 구역 중 한 곳, 즉 민병갈의 이름을 딴 '밀러가든'(Miller's Garden) 뿐이다. 그나마 일부라도 볼 수 있어 다행이다.

바닷가에 위치한 천리포수목원은 일부가 해변에 맞닿아 있다. 한국적인 것을 아끼고 사랑하던 그는 초가집과 눈이 어우러진 풍경을 특히 좋아했으며 수목원 내부에는 해변을 따라 트레킹 코스인 '노을길'이 조성돼 있다. 파도소리, 새소리, 낙조... 민병갈도 들었을 그 자연의 음악과 색조를 우리도 놓칠 순 없다. 벤치에 앉아 바라보면 '낭새섬'이 보인다. 민병갈은 수목원 낭떠러지에 등지를 틀고 살았던 낭새(=바다직박구리)가 다시 돌아오길 기다리며, 그 섬의 이름을 그렇게 붙였는데, 오지 않는 것일수록, 더 그리워지는 법.



“내가 죽거든… 묘 쓸 자리에 나무 한 그루라도 더 심어라”



현재 명명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천리포수목원>에 들어서면, 무엇보다도 다음의 4종 세트를 놓쳐선 안 된다: (1)‘고 민병갈의 흉상’, 그 바로 앞에 그가 생전에 좋아했던 (2)‘개구리 조각’, 그 오른쪽 옆에 그가 국내 최초로 발견한 (3)‘완도호랑가시나무’, 그리고 맨 앞쪽 오른쪽의 (4)‘민병갈 목련’(태산목 리틀잼).



민병갈은 그가 사랑했던 목련(‘민병갈 목련’) 밑에 묻혀 있다. 저 세상에 가면 <천리포수목원>의 개구리로 다시 태어나기를 바랐던 그의 꿈을 받들어 흉상 옆에 작은 개구리 조각을 두었다. 그의 삶은, 이렇게 단순화, 추상화되어 간결한 의미로 환생해 있다. 내가 가서 지켜 보니, 아쉽게도 대부분의 여행객들이 이런 저런 나무에만 몰두하여, 그의 삶의 의미를 그냥 지나쳐버린다.

민 원장은 생전에 “내가 죽거든 묘 쓰지 마라, 묘 쓸 자리에 나무 한 그루라도 더 심어라”라고 당부했다. 그게 유언이었는데, 수목원 직원들은 차마 묘를 쓰지 않을 수 없어 수목원 내 비공개 지역에 그를 일단 묻어 두었다. 그 10년 뒤, 시신을 수습해 뗏가루를 ‘민병갈 목련’이라 부르는 ‘태산목 리틀잼’ 아래 다시 묻었다.

민병갈이 묻힌 ‘민병갈 목련’에서, 마치 송광사 <불일암>(佛日庵) 후박나무 아래 ‘법정스님 계신 곳’에서 느꼈던 나무의 인자함, 사람의 체온이 배인 듯 나뭇잎의 흔들림이 나의 맥박처럼 느껴졌다. 나무는 우직하다. 민병갈처럼, 아니 민병갈이 사랑했던 개구리처럼, 개구리를 닮은 한국인처럼. 민병갈이 개구리를 좋아했던 이유가 있다. “깜빡거리는 개구리의 두 눈은 굉장히 느려 보여요. 그러다 상황이 급해지면 얼마나 빠르게 움직이는지 모릅니다. 한국 사람들은 순하고 착한데 시련이 닥치면 물불

안 가리고 열심히 일 하잖아요. 개구리가 그 모습을 닮았다니까요! 난 한국 사람들 닮은 건 무엇이든지 좋아해요. (<민병갈기념관> 전시물 글 가운데서)”

너른 연못을 배경으로 지어진 <민병갈기념관 & 밀러가든 갤러리>의 2층에는 민병갈을 기념하는 전시물들이 있다. 그 가운데 정갈하게 기록한 일기, 한글을 열심히 공부한 흔적, 틈틈이 수집해 둔 한국인들의 화투, 그가 사용한 명함이나 주민등록증 같은 신분증들이 눈에 띈다.

그런데, 참 아쉽게도, 어디에도 민병갈 관련 책자를 파는 곳이 없다. 기념관에도 기념품을 파는 가게에도,

돌아오는 길, ‘신두리 사구(沙丘)’ 모래언덕에서

천리포를 떠나, 돌아오는 길에 국내 최대 모래언덕 ‘신두리 사구(沙丘)’에 들렀다. 천리포수목원에서 멀지 않은 곳이다. 편안한 모래언덕. 나는 맨발로 한참을 돌아다녔다. 맨발에 스치는 날카로운 풀들의 저항도, 해당화 군락의 꽃잎도 모두 따스하다.

민병갈도 이곳 모래언덕에 와서, 그 어딘가 먼 바다를 바라보았으리라. 우두커니 서서, 해변의 모래와 그 바람을 견딘 풀들을. 그래도 그의 머릿속에는, 여전히 <천리포수목원> 생각뿐이었으리라. 갯국과 버무린 배추에 꽃게, 새우 등을 넣고 시원하게 끓인 개국지처럼 한국인들을 사랑했던 그의 머릿속엔 여전히 소금기 같은 인정에 붙들린, 십리포, 백리포, 천리포, 만리포가 주마등처럼 떠올랐지만, 그 가운데 사랑이 머문 곳은 천리포의 수목원이었으리라.

지난밤, 나는 썰물이 진 바다의 속살을 맨발로 느끼고 싶어, 타박타박 해안을 닮은 만리포의 꾸부정한 어둠을 따라, 무작정 고랑 진 모래에 내 살결을 대고 걸어 들었다. 결국 나도 언젠가, 이 땅에, 흔적 없이 썰물처럼 저쪽 어딘가로 스며들어야만 한다고 생각했다. 아니 오늘·여기, 이 순간, 찰라생 찰라멸을 기뻐하며, 돌아서야만 한다고. (*)



최재목

- 영남대 철학과 교수, 시인
- 일본 츠크바대학원 석사 및 박사
- 하버드대, 도쿄대, 베이징대, 라이덴대 등에서 연구
- 한국양명학회장, 한국일본사상학회장 역임
- 저서/동아시아 양명학의 전개, 노자, 동양철학자 유럽을 거닐다 외 다수
- 200여 편의 논문
- 옷는얼굴아트센터 예술아카데미 특강 진행



우리 정원이 품은



천지인(天地人)

정신

글·자료 이성낙



필자가 미술 동호인들과 함께 일본 전통 정원을 방문했을 때의 일이다. 일본 정원을 둘러보던 중 일행 한 명이 물었다. “왜 우리는 이렇게 깔끔하게 잘 정리된 정원이 없는 것일까?” 불편한 심기에서 나오는 질문에 그 누구도 적절한 의견이나 답변을 하지 못했다. 모두가 동행자의 지적에 동감하는 듯했다.

사실 우리네 전통 정원과 일본의 정원은 달라도 아주 다르다. 언뜻 보기에도 잘 가꾼 일본 정원은 사람이 안으로 전혀 들어갈 수 없다. 쉽게 말해서 일본 정원은 그저 바라만 보는 ‘관상용’이다. 일본 정원에서는 작은 돌 하나도 그걸 조성한 사람이 많은 생각 끝에 고른 위치에 놓여 있다. 그런가 하면 주변의 나무 역시 ‘그림’에 어울리게 식수했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게다가 정성을 다해 가위나 톱으로 곱게 ‘단장’한 것이 또 다른 특징이다. ‘정리 정돈’의 극치라고 할 수 있다.

반면 한국의 정원은 어떤가. 우리네 정원은 무엇보다 단지 보려고만 만든 공간이 아니다. 사람들은 ‘삼삼오오’ 무리 지어 자유롭게 정원에 들어가고, ‘쉬는 공간’으로서 능동적으로 정원을 느낀다. 그리고 정원에 ‘돌덩어리’가 있다면, 그건 원래 그 자리에 있던 자연석이지 일부러 어디선가 옮겨온 것이 아니다. 정원의 나무 또한 ‘가위나 톱’으로 ‘단장’하는 것을 멀리한다. 그러다 보니 ‘정리 정돈’이 안 된 듯 하지만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반깁할 수 있다. 이것이 두 나라 정원의 가장 두드러진 차이점이다.

그 외에도 한국 정원은 대개 오래전부터 추구해온 철학 사상을 근간으로 조성되었다. 우리에게 홍익인간(弘益人間)처럼 익숙한 천지인(天地人) 정신이 바로 그것이다. 하늘(天)은 둥글고(圓), 땅(地)은 네모나다(方) 하여 천원지방(天圓地方)에 사람(人)이 정원에 들어가니 바로 ‘천지인’인 것이다. 사람이 자연과 함께하는 정신이다.

주해 : 1) 천지인 또는 삼재(三才)는 만물을 구성하는 요소로 각각 하늘, 땅, 사람을 뜻한다.

2) 지난 호 ‘우리의 범종(梵鐘), 각별함에는 이유가 있다’ 참고



경주 월성 동궁과 월지(안압지)와 창경궁 후원의 언뒀에는 둥근 섬이 자리하고 있다



한국건축, 아름다움의 극치는 자연의 모습이 숨 쉬고 있기에
도동서원(道東書院)

그래서 7세기 신라 시대 문무왕이 경주 월성(月城)에 신라의 지형을 본떠 만든 안압지(雁鴨池)나 창경궁 후원에 자리한 연못에는 하늘을 가리키는 둥근 '섬'이 있다. 문헌에 따르면 그 연못에서 사람들이 뱃놀이를 했다 하니 천지인의 개념이 우리 정원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필자는 한국과 중국 그리고 일본의 건축 문화에 새겨진 '다름'을 언급한 바 있다. 중국 건축물의 '지붕선(Roof line)'에서는 '권력, 권세'가, 일본 건축물의 '지붕선'에서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도는 한편, 한국 건축물에서는 '여유와 푸근함(Relax)'이 느껴진다고 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선(線)의 예술적 감각이 있다고 지적했다. (〈Bravo My Life〉, 2017) 이러한 필자의 생각에 오래전 크게 밑줄을 그어준 한 예술가가 있다. 바로 스페인이 낳은 천재 건축가 안토니 가우디(Antoni Gaudi, 1852~1926)다. 그의 금언으로 전해오는 말, 곧 "곡선(曲線)은 하느님이 만들고, 직선은 인간이 만든다"는 말이 모든 걸 대변해준다.

우리 문화의 핵심 코드는 '직선'을 배제한, 그래서 '자연에 순응'하는 경향이 뚜렷하다. 이는 다시금 천지인 사상과 궤를 같이하는 기본 정신이다. 이를 염두에 두고 우리 정원을 보면 한결 따뜻함이 느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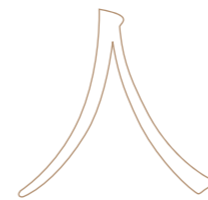
건물의 내부 공간도 예외가 아니다. 일본 건축물의 바닥을 보면, 형태와 넓이가 규격화된 '다다미(畳)'로 꾸며져 있다. 천장을 장식하는 서까래 또한 대패로 직선·직각으로 다듬어 조성했다. 그에 비해

한국 전통 가옥의 서까래는 비슷한 크기에, 별로 가다듬지 않은 통나무를 '그대로' 사용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조금은 투박한 느낌마저 준다. 이를 대표하는 건축물이 바로 대구의 '도동서원(道東書院)'이다. 조선 전기의 유학자 김굉필(金宏弼, 1454~1504)을 배향(配享)한 도동서원의 서까래는 불균등한 나무가 나란히 붙어 있다. 마치 자연의 '숲'을 이루듯 말이다. 대청마루의 바닥 또한 나무의 몸통 윤곽선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곡선의 미'를 한껏 자연스럽게 뽐내고 있는 것이다.

서원이 심신 수련장이었다는 특수한 성격을 감안하면 더욱 그러하다. 일본의 경우라면 아마도 반듯 반듯하게 규격화된 다다미 바닥 공간으로 조성했을 것이다.

일본을 대표하는 한 목가구 공예가가 1930년대에 우리나라를 찾아왔을 때 겪은 일화가 전해온다. 그가 어느 목공소를 방문해 우리 목수(木手)가 목재를 다루는 모습을 보고는 물었다. "왜 완전히 건조되지 않은 목재를 사용하십니까?" 조금은 핀잔하는 듯한 말투에 목수는 반문하듯 이렇게 대답했다. "원래 나무는 비틀어지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 아닙니까?" 예상 밖의 답변을 들은 일본 목가구 장인(匠人)은 충격과 함께 큰 깨우침을 받았다고 한다. 양국의 건축 문화와 관련해 많은 것을 시사 하는 일화다.

이처럼 정원이나 건축 문화를 보면, 한일 양국이 추구하는 아름다움의 정점이 많이 다르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일본이 깔끔하고 정리 정돈된 인공적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반면, 우리는 자연에 순응하는 포근한 미(美)를 추구한다. 두 나라는 지리적으로 가깝지만 참으로 많이 다르다.



이성낙

- 가천대 명예총장, 의·약사평론가회 회장
- (사)현대미술관회 회장, (재)간송미술문화재단 이사
- 원현의과대 졸업
- 프랑크푸르트대 피부과학 교수, 연세대 의대 교수
- 아주대 의무부총장 역임
- 문화만개 및 자유칼럼 등 기고

러시아의 고도 카잔 Kazan 월드컵

— 공존의 땅 타타르스탄을 가다 —

글·사진 박정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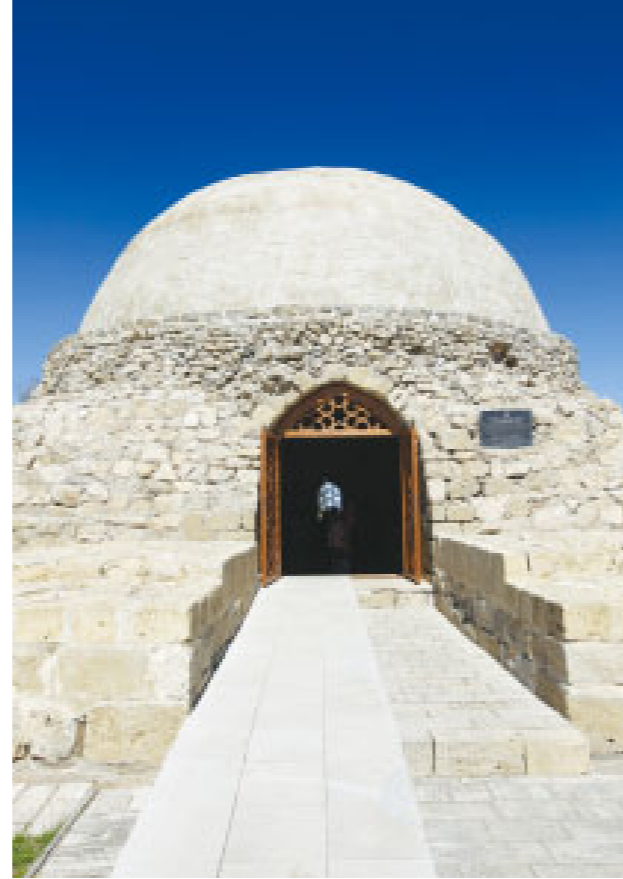
검푸른 어둠을 가리는 햇살에 아침이 눈을 뜨다 만다. 소리 없이 찾아온 백야의 기세가 당당하게 여름을 메우나 했더니 때아닌 장대비와 예고 없이 몰아친 세찬 바람이 번덕스러운 모스크바의 하루를 보란 듯 장식한다. 그 덕분에 해가 지지 않음에도 오늘 오후는 온종일 코발트빛이다. 빛과 어둠은 마치 경쟁이라도 하듯 서로의 기세를 억누르며 변화무쌍한 백야의 여름 날씨를 증명해 보인다. 백야의 온화함을 기대하던 방문객들도 서둘러 가게에 들러 가을에나 입을 법한 사파리와 레인 코트를 장만한다. 인파로 붐비는 역사는 처마에 몸을 숨긴 여행객들로 가득 매워졌고 그들의 어깨를 축축이 적신 빗방울 새로 어느새 모락모락 김이 피어오른다. 흑서에 시달리는 우리네 여름 풍광을 상기하자면 더없이 낯설겠지만 한여름에 봄, 여름, 가을을 무차별로 체험하는 2018년의 러시아는 낮밤을 가리지 않고 변화를 이어간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예정된 날은 어김없이 찾아왔고, 월드컵이란 세계의 축제는 백야를 가르며 열광의 도가니로 군중을 몰아넣었다. 러시아와 사우디아라비아의 경기를 시작으로 뜨겁게 개막의 성찬을 올린 월드컵은 러시아 전체 11개 도시에서 진행되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뿐만 아니라 흑해 남부의 소치와 니즈니노브고로드 등 러시아의 진면목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상징적인 도시들에서 경기는 치러졌는데, 그들 중 유독 슬라브적인 색채가 열은, 낯설고도 비밀스런 도시가 있었으니, 필자는 이슬람교와 러시아 정교가 공존하며 조화롭고도 고유한 문화를 개척한 타타르스탄의 고도 카잔을 둘러보았다.

변방에서 문화의 중심으로 - 타타르스탄

러시아 대륙의 서부 끝자락을 중횡하며 유유히 흐르는 볼가강(Volga river)은 오래전부터 다양한 민족이 어울려 함께 터전을 일군, 그야말로 축복받은 땅으로 자리매김하였다. 모스크바 북서쪽의 트베리(Tver)주 발다이에서 발원해 흐름을 이어가다, 대평원으로 이어지는 중류에서 회를 치며 기억자 형세로 꺾여 남부 카스피 해를 향해 방향을 튼 볼가는 그 풍성함으로 유역에 정착한 모든 민족을 품에 가득 안았다. 슬라브인의 영향이 절대적인 러시아지만 추바시, 마리, 우드무르트, 모르도비아와 같은 소수민족들이 볼가와 함께 역사를 이어갔으며, 여전히 이들에게 볼가는 단순한 강이 아닌 <어머니 볼가>로서 평화와 안식을 가져다주고 있다. 이처럼 다양한 문화가 담긴 볼가를 따라 모스크바에서 동쪽으로 800킬로미터가량 오다 보면 허리가 굽어진 볼가 중류에 터를 닦은 타타르스탄과 마주하게 된다.

러시아 연방에서 44번째로 넓은 면적을 차지하는 타타르스탄 공화국(Republic of Tatarstan)은 프리볼시스키 연방관구에 속한 곳으로 400백만 명에 좀 못 미치는 인구가 살고 있다.



볼가르 유적지



Republic of Tatarstan



볼가르 유적지 내부 비석

일찍이 몽골이 러시아 대륙을 점령할 시기 가장 먼저 몽골에 동화되어 러시아 정복에 합류한 민족이 타타르인데, 당시의 일들은 러시아사에 <몽골 타타르의 명예>라 기록될 정도로 깊이 각인되어 있다. 좀 더 설명하자면, 칭기즈 칸의 후예이자 오고타이 칸의 아들인 바투가 대륙을 정벌할 무렵, 지금의 타타르 지역에는 볼가르인들이 살고 있었다. 기원전 8세기경부터 인류가 살아온 흔적이 남아있는 볼가 유역에 맹주로 자리한 볼가르인들은 중앙아시아 일대의 유목민족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볼가와 코카서스 지방까지 널리 영향을 미쳤던 이들은 이후 유럽으로 이주해 오늘날 불가리아의 한 지파로 자리하였다. 그들 가운데 일부는 볼가 유역에 그대로 남아 새로운 왕국을 건설하였는데, 이가 바로 작금의 타타르인의 조상적인 <볼가 불가르 왕국>이다.

후세에 전해지는 몇몇 사료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는 터에 축자된 기록마저 미비하다 보니 아쉽게도 볼가 불가르에 대한 역사는 아직 많이 밝혀진 바가 없다. 그러다 보니 반대로, 그만큼의 매력과 신비감은 더해진다. 불가르에 대한 기록은 아라비아의 지리학자들로부터 유래되었다. 900년대 초 아랍의 사전 학자인 이븐 루스테는 불가르에 대해 '카스피해로 유입되는 강변에 살던 민족'이라 전하였으며 후대의 학자들은 10-11세기에 슬라브인들과 국경을 접한 땅을 불가르 지역이라 기록하였다. 어쨌든 이들은 지구상 가장 북쪽에 위치한 이슬람의 땅인 불가르에 많은 관심을 가졌는데, 일부 러시아 학자들은 불가르가 코카서스에서부터 이르티쉬 강과 오비 강에 달할 정도로 그 규모가 컸을 수도 있다고 주장한다.

독특한 건축양식과 생활 모습으로 볼가 문화의 꽃을 피워오던 불가르는 13세기에 이르러 몽골의 침략으로 멸망하고 만다. 뛰어난 기마술과 강력하고 다양한 무기로 우랄을 넘어 서진(西進)한 몽골의 군대는 순식간에 타타르를 흡수해 버리고 서부 러시아의 블라디미르-수즈달 공국과 야로슬라블 공국을 함락하였고, 바투는 키예프 공국에 이어 폴란드와 헝가리까지 점령하였다. 아버지 오고타이의 죽음으로 바투는 서유럽 정벌을 중단하지만 중앙아시아와 남부 러시아에 새로운 국가인 킵차크한국(금장한국)을 건설한다.

13-14세기가 지나가고 도륙과 약탈로 점철되었던 타타르 지역에도 점차 평화가 찾아오기 시작하였다. 이반 뇌제는 타타르인의 침략으로부터 러시아를 지키기 위해 군대를 파견하였으며, 타타르 지역에 정착한 러시아 군대는 요새를 짓고 성벽을 쌓아 타타르 군사들에 맞섰다. 킵차크 한국이 멸망한 이후인 15세기 초 무하마드는 이곳에 카잔한국을 세우고 킵차크의 후예로서 모스크바 공국과의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나갔으나, 1552년 이반 뇌제에 대해 싸우던 카잔한국은 전투에서 패하고 러시아 공국에 복속되고 만다. 지금과 같이 타타르 지방으로 명칭이 불리게 된 것은 그로부터 수세기가 지난 후, 표트르 대제가 러시아 제국을 세우고 영토를 정비하면서부터라 한다.



타타르 민속 인형

오늘날에도 여전히 타타르인들은 러시아의 주류인 슬라브 민족과 정교회의 영향에 동화되지 않고 독립적인 이슬람 문화를 꽃피워 나가고 있다. 그들의 배포와 씹숨이 또한 불가를 닮아 아깍이 없다. 우리의 단오와 유사한 민속 명절인 사반투이(Sabantui)가 찾아오면 타타르인들은 차착(chakchak)과 할바(khalva)를 비롯한 갖가지 전통음식을 준비해 축제를 벌이고, 민속 씨름과 통나무 오르기 등 다채로운 경기들로 명절의 흥겨움을 이어간다. 축제를 이어가며 이웃 민족에 대한 넉넉한 마음씨도 빠뜨리지 않는다. 민족 출신에 상관없이 타타르인들은 러시아 전역에서 찾아온 사람들을 초대하여 융숭한 대접을 한다. 실제로 타타르스탄에는 115개의 민족이 살고 있으며 주변 민족들 또한 타타르에 적지 않은 영향을 받으며 살아오고 있다. 이처럼 수많은 민족이 살면서도 갈등이 크지 않은 곳은 세계적으로 많지 않을 터. 이들 가슴 가득 담긴 불가의 풍성함이 그 평화로움의 원동력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카잔역 야경

공존의 도시 - 카잔

도시 곳곳에 세워진 이슬람 사원에서 울리는 아잔은 마치 아랍의 어느 나라에 와 있다는 착각이 들게 할 정도로 이색적이다. 정교 국가로서의 러시아에 대한 고정관념이 우리에게 지배적이다 보니 처음 이곳을 방문하는 이들에게는 더더욱 낯설 수밖에 없을 것이다. 도시를 가로지르는 카잔카(Kazanka)강 위로 반사된 햇빛은 너무나 강렬해 긴팔을 입지 않고 거리를 활보하기가 힘들 정도에다, 아스팔트에 데워진 복사열이 몸을 찌 한층 더 아라비안을 연상케 한다.

카잔(Kazan), 오늘날의 평화와 공존을 위해 과거 수많은 희생을 감내해야 했던 곳. 물론 하나의 문화가 다른 문화와 충돌하고 흡수되는 과정에서 피를 흘리지 않기란 쉽지 않은 법. 카잔이란 도시도 그렇게 과거의 기나긴 명암 속을 지나 공존이란 길을 찾아나갔다.

타타르와 러시아의 대면에 있어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인물은 다름 아닌 이반 4세이다. 러시아 역사에서 이반 뇌제로 더욱 잘 알려진 이반 4세는 잔혹하기로 유명했다. 실제로 그는 어린 시절부터 비둘기를 잡아 목을 비틀고 옥상에서 동물을 던지는 등 처참한 행동을 보였으며 만년에는 정신착란으로 자신의 아들인 바실리마치 용장으로 내려쳐 죽였다고 전해진다. 모스크바 트레티야코프 미술관에 전시된 일리아 레핀의 <이반 뇌제와 그의 아들 이반>이란 그림은 아들을 죽인 후 정신이 돌아와 절규하는 이반 뇌제의 참담한 모습을 사실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토록 악명 높은 이반 4세이지만 그만큼 많은 업적을 남긴 것도 분명한 사실이다. 가령, 흑한의 땅 시베리아를 개척하기 위해 우랄산맥 너머로 군대를 원정 보낸 것도 이반 4세 때부터였으며 그가 행한 크고 작은 세계개혁은 오늘날까지도 세간에

Kazan



카잔 크렘린

회자되고 있다. 무엇보다 차르 치하 왕정에 의회 제도를 도입했던 점은 러시아 역사에 길이 남을 일이다. 뇌제라는 유쾌하지 않은 별명도 귀족출신들에 대한 압제에서부터 비롯되었다 하니 단편의 사실만으로 그를 평가하기는 어렵겠다. 그런 이반 뇌제가 영토 확장에 있어 가장 공을 들였던 부분이 바로 카잔 점령이었다.

120만 명의 인구가 살고 있는 카잔은 러시아 연방 전체를 두고 보았을 때도 분명 큰 도시이다. 우리나라에서야 인구 백만 이상의 도시를 찾기가 그리 어렵진 않지만 광활한 영토의 러시아에서는 수도 모스크바와 페테르부르크를 제외하고 나면 시베리아 횡단열차가 자나는 거점이거나 대규모 곡창지대의 중심이 아니면 백만 이상의 인구를 가진 도시를 찾기가 쉽지 않다.

종교와 예술, 문화 전반에 독특하고도 훌륭한 양식을 가진 카잔은 도시 자체가 한마디로 유적지와도 같다. 도시 카잔의 생성과정에는 몇 가지 전설이 따르는 데, 그중 하나는 어느 마법사가 고대 불가르인들에게 카반 호수 인근에 불이 없어도 향아리가 끓는 땅이 있으니 그곳을 찾아 정착하라 일렀다. 사람들은 오랜 시간 이 신비의 땅을 찾아 나섰고 마침내 스스로 향아리가 끓어오르는 땅을 찾았다는 전설이다. 실제로 카잔은 큰 숲, 큰 향아리를 의미하고 도시 명칭 또한 이 전설에서 유래하였다 전해진다. 이처럼 불이 없어도 끓어오르는 향아리처럼 뜨거운 열정을 간직한 카잔은 고대의 흔적을 듬뿍 담고 있다. 러시아의 대도시라면 어디에나 쉽게 크렘린을 찾아볼 수 있는데 이곳 카잔의 크렘린은 그 독특한 양식과 역사적 가치로 인해 일찍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되었다. 통상 크렘린을 떠올릴 때면, 붉은 광장의 한 면 붉은 벽돌로 둘러싸인 모스크바 크렘린을 연상하게 되는데, 사실 크렘린은 러시아어로 '요새' 혹은 '성곽'을 뜻하며, 니즈니노브고로드와 툴라와 같은 대도시에는 어김없이 시내 한복판에 세워져 있다. 이처럼 수많은 크렘린 중에 카잔의 크렘린은 과거의 원형을 가장 잘 보존하고 있으면서도 지역적 특색을 훌륭하게 보여주는 건축물로 인정받고 있다.

크렘린 성벽 안은 더욱 이색적이다. 광장 앞 흰 벽면에 양파지붕을 한 러시아 정교회와 가늘고 긴 기둥들이 뾰족이 솟은 이슬람 사원 <쿨 샤리프>는 마치 정교와 이슬람교의 상호존중을 보여주듯 사이 좋게 나란히 크렘린 중심에 세워져 있다. 웅장하고도 화려한 화강암 벽면에 색색의 스탠드글라스가



쿨 샤리프 사원



카잔 고양이



쿨 샤리프 사원 내부

내부를 장식하고 있는 이곳은 종교를 초월해 이슬람교도뿐만 아니라 정교회 신도들에게도 널리 사랑받고 있어 해마다 찾아오는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크렘린을 나와 도시 한복판으로 이어지는 바우만 거리는 언제나 생동감으로 가득 차 있다. 주말이 되면 첼로와 기타를 들고 거리로 나온 악사들이 지나는 시민들의 귀를 즐겁게 해 주고 인파로 붐비는 거리 곳곳은 분주함 보다는 활기로 물들어 있다. 카페테라스에서 커피 한 잔의 여유를 즐기는 타타르 여인들의 얼굴에는 티 없는 미소가 베어나고 아이를 목말 태운 아버지의 눈가에는 행복감이 젖어 있다.

그런데, 바우만 거리를 따라 조금 걷다보면 양중맛고도 익살스런 동상과 마주치게 된다. 바로 카잔의 도시 상징인 고양이 동상이다. 용맹스러운 호랑이, 창공의 제왕 독수리 혹은 순록과 같은 도시 상징은 러시아 전역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 재미있게도 카잔은 <카잔스키 코트>라 불리는 고양이를 상징으로 한다. 전설에 따르면, 카잔한국의 칸은 고양이를 유독 사랑했고 그의 고양이가 또한 주인을 아끼는 마음이 남달랐다 한다. 심지어 칸의 고양이는 주인이 자고 있을 때 적들이 침투해 오면 짐승의 본능으로 인지하고 칸을 깨워 대비를 할 수 있게 해주었다 하니 주인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을 듯하다. 이러한 일화가 오늘날까지 전해져 시내 중심거리에는 고양이 동상이 세워져있고 오가는 이들은 이곳에서 고양이의 발을 만지며 소원을 빌곤 한다.

작지만 큰 섬 - 스비아주스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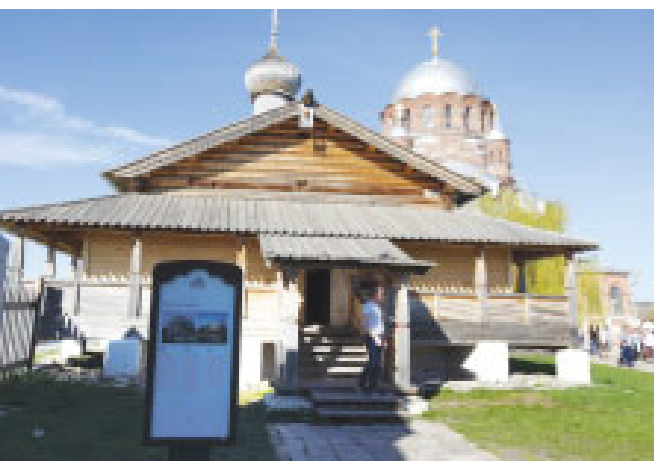
수도 카잔에서 약 한 시간 남짓 차를 타고 들판을 가르다 보면 볼가와 스비야가 강이 만나는 멋진 절경이 눈앞에 들어온다. 낮은 언덕과 드넓은 평원을 가르며 유유히 굽이치는 볼가는 스비야가라는 지류와 합쳐져 더욱 웅장해지며 넓어진 강폭 너머 한껏 멋을 뽐낸다.

장장 375킬로미터에 달하는 볼가의 지류인 스비야가 강은 울리야노프(Uliyanov)주와 타타르스탄 공화국을 따라 흐르며 볼가로 유입된다. 이 두강이 합쳐지는 곳에 아담하고도 더없이 아름다운 섬인 스비아주스크가 보석처럼 박혀 있다.

1551년 5월 스비야가 강을 따라 내려온 러시아의 무인들은 이반 뇌제의 명에 따라 숲을 밀고 나무를 깎아 새로운 도시를 건설하고자 하였다. 도시건설에 앞서 기도를 올리고 성수로 정화를 한 다음 착공을 시작하였는데, 이때 가장 먼저 성모 탄생 성당과 세르게이 라도네츠키 사원을 건립하였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의 요새도시가 불과 4주 만에 완공되었다고 하니, 여기에는 뇌제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을 것ियो, 러시아 무인들의 탁월한 목조건축술이 뒷받침되기도 하였을 것이다.



볼가와 스비야가 강이 만나는 스비아주스크



Svijazhsk

사람이 늘고 규모가 커짐에 따라 스비아주스크는 러시아 군대의 거점으로 성장하였으며 모스크바와 노브고로드에 있는 크렘린의 규모에 견주어도 뒤지지 않는 훌륭한 요새가 만들어졌다. 나무로 만들어졌던 건물과 교회, 성벽은 시대가 흐르며 차차 돌로 바뀌었고 오늘날 이곳은 타타르스탄의 최대 명물 가운데 한곳이 되었다.

월드컵이 한창인 지금도 수많은 관광객들이 스비아주스크를 찾아 대자연 속 볼가의 풍광을 한없이 만끽하고 있다. 유네스코에 등재된 우스펜스키 사원은 세계각지의 순례자들로 붐비고 있었고 타타르와 러시아 무인들의 갑옷이 가득한 중세 기사 체험관은 아이들을 비롯하여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모두에게 훌륭한 휴식처를 제공하였다.

그럼에도 섬 도시 스비아주스크가 필자에게 가져다 준 가장 큰 감동은 자연 속 세워진 마을 사이를 따라 거닐 수 있는 산책길이었다. 자동차 경적과 문명의 소음은 섬에 들어옴과 동시에



스비아주스크 섬 전경

사라지고 이따금 머리 위를 여유롭게 비행하는 강 갈매기의 울음과 풀벌레 소리만 귀를 즐겁게 할 뿐이었다. 때로는 소곤소곤 때로는 시끌벅적 인파가 쏟아내는 다양한 언어의 대화마저 이곳에서는 정겹다. 더욱이 섬에 첫발을 들인 후 도보로 불과 20여 분이면 맞은편 끝에 다다를 수 있으니 시간에 쫓겨 산책의 여유를 즐기지 못하던 이들이 도시 문명의 피로를 풀기에는 더없이 좋은 장소라 하겠다. 산책의 망중환에 머리를 식히고 섬 끝자락에서 밖을 바라보다 보면 하늘과 맞닿은 볼가와 스비야가 강이 두 팔을 벌린 채 마치 상처받은 영혼들을 치유해 주려는 듯 온화하게 흐르고 있다.

카잔의 뜨거운 열정과 스비아주스크의 상쾌함, 그리고 어머니 볼가 강의 무한한 너럭함은 타타르스탄을 찾는 모두에게 기리 남을 추억을 선사할 것이다.



박정곤

- 고리키 문학대학교 한러문화연구원 원장
- 고리키 문학대학교 초빙 연구교수
- 러시아 지역 전문가/극지방 문화 연구자
- EBS <세계 테마기행> 러시아 큐레이터



나 혼자 느낀 느낌이기에 이곳에서 그린 그림은
누구의 것보다도 닮을 수 없다

— Claude Monet —

Monet, Water-Lily Pond, Symphony in Green, 1899
Oil on canvas, 89 x 93.5cm

Impression

여기는 모네의 정원, 멀리 초록색 다리가 보인다.
서로 마주보고 있는 다리 위로 등나무 줄기가 보인다. 버드나무 가지는 여름 잎을 늘어뜨리고 있다.
연못과 다리, 익숙한 나무들. 마치 일본 정원의 정경(情景)처럼 느껴진다.
빛이 지나가는 순간의 느낌을 캔버스에 들인 기적의 화가 클로드 모네(Claude Monet).
인상파의 기수로 미술계에 색채의 혁명을 일으킨 장본인이다.

영화 '미드나잇 인 파리'처럼 마차를 타고 시간을 거슬러 가보자.
1872년 어느 날 아침, 모네는 르 아브르 항구의 해돋이 광경에 반했다.
마치 눈을 반쯤 감고 그린 듯 해가 떠오르는 순간을 빠르게 그려냈다.
1874년 4월의 봄, 모네와 친구들은 파리의 카뮈신 거리에 있는 사진사 나다르의 작업실에서
단체 전시회를 열었다. 1872년 아침에 그린 그림 '인상, 해돋이' 도 함께 세상에 나왔다.
카페 게르부아에서 모네와 세잔, 부댕, 드가, 르누아르, 피사로 등 30여 명의 화가들이 모여
'무명협동협회'를 결성했다, 첫인상 First Impression, 인상주의 미술이 시작된 것이다.

2018년 어느 날 새벽,
클로드 드뷔시(Claude Debussy)의 명작 '달빛'이 잔잔하지만 더욱 심쿵하게 다가온다.
인상주의 미술과 상징주의 시, 동양문화에 대한 동경에 영향을 받아 등장한
인상주의 음악은 절제된 표현의 섬세함과 색채적인 음의 효과에 모호한 분위기가 특징이다.
인상주의 미술에 영향을 받은 드뷔시를 비롯, 라벨, 스트라빈스키 등
당대 음악가들 역시 인상적인 작곡 활동을 펼쳤다.
이른바 인상주의 음악의 시조인 드뷔시는
그 당시 바그너를 중심으로 무르익은 후기 낭만파 음악에 대한 도전자였다.
그의 음악이 근대 음악 사상에 이룩한 획기적인 역할은
인상주의 회화와 마찬가지로 서양 음악의 표현 능력을 전혀 다른 차원으로 옮겨놓은 것이었다.
동양적인 음감에 대한 탐구로 그의 음악세계는 명상적인 분위기를 자아낸다.
인상파의 화가들이 추구했던 색깔과 빛의 현실성을 음(音)으로 구현한 결과
파도소리가 들리는 바다, 빛이 가득한 숲, 달빛 가득한 방...
소리의 회화적인(音畫) 표현은 우리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한다.

빛에서 시작된 인상주의 미술, 거기서 영감을 받은 인상주의 음악,
그리고 빛을 가득 안고 있는 파리의 파사쥬(passage)를 감상하면서
독자들의 삶에도 인상적인 예술이 깃드시길...

글 김은주(편집자)

인상주의 시작과 끝,

클로드 드뷔시

글·자료 최훈락

Western Classical Music

Claude Debussy

서양 고전주의 음악(Western Classical Music)의 정확한 정의는 없다. 다만 많은 음악학자들이 통념적으로 르네상스 후기인 1500년대 말 정도부터라고 언급하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언제까지가 서양 고전주의 음악인가 인데,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와 '2차대전을 끝으로 끝이 났다'의 의견이 팽팽하다. 이런 의미 있고, 논리적인 논쟁은 그 자체로 훌륭하기에 나는 어느 편에도 서고 싶지는 않으나, 연주자로서 아무래도 작곡가들의 의견에 손을 들어주고 싶다. 작곡가들은 아주 쉽게 그리고 명확하게 얘기한다. '서양 고전주의 음악은 조성(Tonality)음악의 시대이다'

베토벤은 고전주의 시대를 마무리하고 낭만주의 시대를 연 음악사에서 아주 중요한 인물이다. 그 덕에 후배음악가들은 낭만주의 시대에서 마음껏 음악활동을 할 수 있었고, 이 시기의 음악들은 지금까지 전 세계인들로부터 사랑받고 있다. 이렇게 물 흐르듯(?) 흘러가던 낭만주의 음악의 후기에 여기저기에서 반기 아닌 반기를 든 음악가들이 하나 둘씩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중 대표적인 작곡가가 바로 클로드 드뷔시(Claude Debussy, 1862~1918)이다.

Claude Debuss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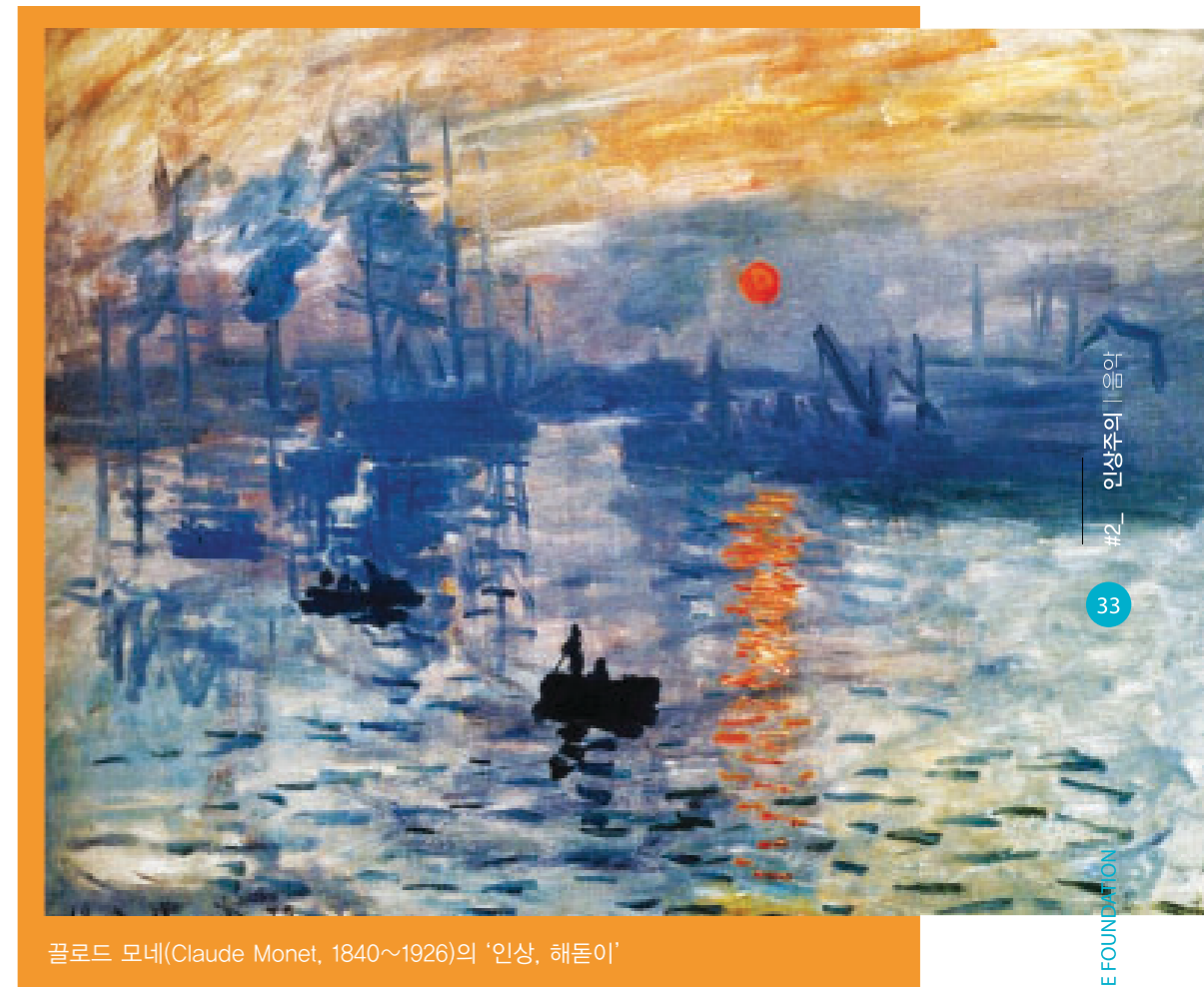


클로드 드뷔시

Claude Debussy, 1862~1918

모네 ~ 드뷔시 ~ 인상주의

1874년 프랑스 파리에서 당시 예술아카데미에서 기획한 전시회에서 거절당한 작가들이 모여 처량할 만큼의 작은 전시회가 열린다. 그리고 이 전시회를 평론한 평론가가 한 작가의 작품명에서 착안, '인상주의(Impressionism)'이란 단어를 포함한 제목으로 기고를 한다.



클로드 모네(Claude Monet, 1840~1926)의 '인상, 해돋이'

“검은색을 쓰지 않고도 어둠을 표현한 이 작품이 얼마나 대단한가!”
(하지만 이 글은 비아냥거리는 투의 말로 이 문장을 곱씹어 읽어보면 뜻이 상당히 달라진다.)

“검은색을 써서 어둠을 표현하면 되지 왜 굳이 저러냐!”라고 평론가들은 애매한 표현을 써가며 '인상, 해돋이' 작품을 평가했다.

'인상, 해돋이' 작품의 작가는 그 유명한 클로드 모네(Claude Monet, 1840~1926).

그로부터 18년 후, 스테판 말라르메(Stéphane Mallarmé, 1842~1898)의 상징시에서 영감을 받은 '목신의 오후에서의 전주곡(Prélude à l'après midi d'un faune, 1892)'이 드뷔시에 의해 작곡되었다. 이 곡의 발표는 음악사에서 '인상주의'라는 장르의 음악을 탄생하게 했다. 이후 인상주의 음악가들의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었다.

다시 말해 프랑스의 화가 및 프랑스의 문학가로부터 영향을 받은 프랑스의 한 음악가가, 낭만주의 시대 후기에 '인상주의'라는 새로운 음악 사조를 만들어 낸 것이다. 이후 프랑스 전국으로 그리고 전 유럽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대표적인 인상주의 음악가로는 모리스 라벨(1875~1937), 이고르 스트라빈스키(1882~1971), 벨라 바르토크(1881~1945), 카롤 시마노프스키(1882~1937) 등이 있다.

추천 음악 'La fille aux cheveux de lin, 아마 빛 머리의 소녀, 1910'



클로드 드뷔시 서거 100주년

하지만 인상주의 음악은 드뷔시에서 시작, 절정을 이뤘으며, 그의 사망으로 인상주의 음악은 끝이 났다 라는 평도 더러 있다. 개인적으로 나 역시 이 의견에 찬성하는 편인데 그 이유는, 인상주의 음악은 명확한 대상을 두고 작품을 만들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대상에서 느낀 순간적인 생각을 그만의 방식으로 강하게 표현한 것이고, 이러한 부분에서 작곡가의 작품마다 다른 독창성이 생기기 때문이다. 물론 음악기법적으로는 불협화음이나 기존의 음계에서 변화된 음계들의 잦은 사용 등은 비슷한 맥락일 수 있겠지만, 인상주의적인 음악 표현은 그만이 가진, 그리고 그만이 가질 수 밖에 없는 순수한 영감 그 자체이다.

올해는 인상주의 음악의 창시자인 드뷔시의 서거 100주년이다. 자연히 전 세계적으로 이를 기념하는 음악회가 여러 곳에서 많이 열리고 있다. 새로운 음악이나 길들여지지(익숙하지) 않은 음악들은 대중들한테 수동적일 수밖에 없는 법이다. 분명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존 음악에 길들여져 있기에 '기존의 음계와 화음을 새로운 기법으로 표현한 인상주의 음악'에 당황해 할 수 있다. 하지만 '언제 시작했는지, 어디가 마무리인지 안개 속을 지나는 듯한 음악', '주인공이 아닌 배경처럼 느껴지는 애매모호한 분위기의 음악'을 듣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그 매력에 빠지게 된다. 이 글을 읽는 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은 인상주의 음악이 생기게 된 이유와 이 음악의 사조가 지닌 특징들을 어느 정도 이해했다면 인상주의 음악연주를 관람하는 기회를 꼭 가져보길 권한다는 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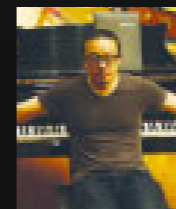
그야말로 개인의 순수함에서 출발하게 된 인상주의 음악.

인상주의 음악을 통해 가슴 속으로 들어온 순수한 색채의 빛을 찾아보시기 바란다.

Works of art make rules;
rules do not make works of art.

예술 작품은 규칙을 만들고,
규칙은 예술 작품을 만들지 않는다.

Claude Debussy



최훈락

- 피아니스트

- 앙상블 인(N) 리더, 앙상블 MSG 예술감독,
주)스타엔즈 엔터테인먼트 소속 전문연주자

- 독일 슈투트가르트 국립음악대학 피아노 'Kuensterische Ausbildung' 졸업

- 트로싱엔 국립음악대학 피아노 'Solistische Ausbildung' 수료

- 계명대학교, 국립 안동대학교, 대구예술대학교에서 외래교수로 역임

- 솔로 앨범 '내 마음의 스케치' / 듀오 앨범 'Romance' 발매

Pissarro, Rue Saint-Honore in the Afternoon.
Effect of Rain, 1897

Impressionism



印象主義

인상주의 미술과 일본 우키요에 판화의 영향

うきよえ

글·사진 김영동



빛이 가득한 시슬레의 풍경화.



인상주의 미술 /

인상주의는 1860년에서 1880년대 사이에 프랑스를 중심으로 전개된 미술 유파다. 당시 프랑스와 파리의 화단을 주도하던 아카데미한 예술의 관습에 구속 받지 않고 보다 많은 자유로 경쟁하고 자발적인 수법을 구사했던 회화였다. 인상주의 미술의 주제는 대개 빛이 가득한 야외 공원 등지에서 바라본 자연 풍경화였는데, 주제에 대한 자연주의적이고 솔직한 취급은 그 뿌리를 카미유 코로와 쿠르베 등의 프랑스 사실주의 작가들에 두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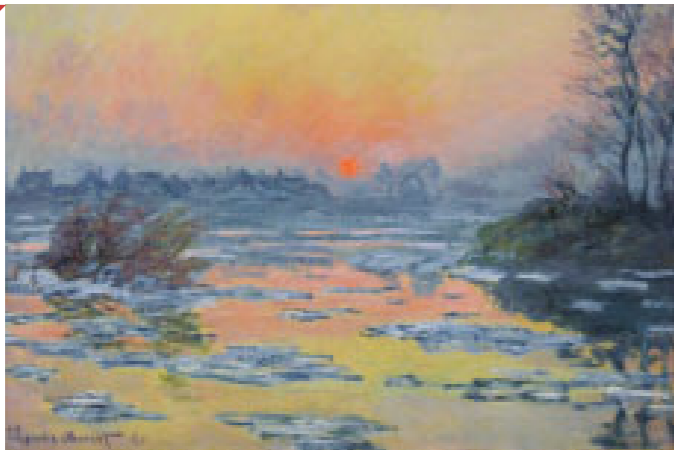
‘인상주의’ 이름의 유래

인상주의는 당시 살롱전과 무관한 젊은 작가들이 모여 하나의 그룹 운동처럼 시작되었는데 1874년에 첫 전시를 가진데 이어서 규칙적이진 않았더라도 1886년까지 모두 십여 차례의 전시를 열었다. 그 이름의 기원은 모네의 초기작품, ‘인상, 해돋이’라는 작품의 제목에서 비롯되었다. 문제의 작품이 출품되었던 그 전시를 조롱조로 언급한 루이 레로이(Louis Leroy)의 비평에서 골라낸 이름이다. 이 양식의 현저한 특징은 어떤 장면에서 빛에 대해 느낀 주관적인 인상을 포착하려는 데 있었다.



모네의 ‘인상, 해돋이’ 풍경화(파리 마르모탕 모네 미술관).

‘인상, 해돋이’ 작품은 지금 파리 마르모탕 미술관이 소장, 전시하고 있다. 시시각각 변화하는 일출의 광경을 놓치지 않으려고 재빠른 스케치 같은 수법으로 묘사한 것인데 당시 관객들의 눈에는 매우 거칠고 미완성적인 그림으로 비쳤을 것이다. 그러나 작가에게는 찰나적인 그 순간의 ‘인상’을 포착하는 것이 주된 관심이었던 만큼 흔히 하듯 작업실에 가져와서 더 완성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처럼 인상파 화가들은 빠르게 지나가는 덧없는 시간 속에서 목격하는 자연의 풍경이나 사람들의 일상생활을 즉석에서 느낀 그대로 그리는데 큰 흥미를 가졌다.



모네의 ‘일몰’ 풍경화(하코네 플라 미술관).

기분을 내면서 자연의 일시적인 분위기와 변화를 잘 전달한다.

이 작품만큼 유명하지는 않지만 ‘일몰’을 주제로 한 모네의 작품이 또 있다. 일본 도쿄에서 멀지 않은 휴양지 하코네에 있는 플라 미술관이 소장하고 있다. 스케치 같은 분위기는 앞의 일출 장면에서 더 현저하지만 두 그림 모두 자연의 일시적인 무상한 모습에서 느끼는 주관적 감정을 소략한 필치와 밝은 색채로 그린 점은 마찬가지다. 이처럼 인상주의 그림은 즉흥적인

인상주의 작가들

이런 인상주의자들의 그림은 보통 아카데미한 주제의 그림들과 달리, 현실 공간의 환영을 재현하려고 하는 전통적인 목표로부터 벗어나 있다. 대부분은 빠르게 완성한 작품에서 덧없이 흘러가는 자연의 모습과 시각적 감각에 의한 일시적인 기분을 탐구하는 그림들이다. 이렇게 느슨하게 규정된 단체에 참여한 화가들은 그 무렵 수십 명에 이르렀지만 그들 가운데 대부분은 오늘날 잘 알려지지 않다. 다만, 마리 카사트, 폴 세잔, 에드가 드가, 클로드 모네, 베르뜨 모리조, 카미유 피사로, 피에르 오귀스트 르누아르 등의 이름이 유명하다. 그중에서도 초기 인상주의 그룹의 핵심은 클로드 모네, 알프레드 시슬레, 피에르 오귀스트 르누아르였고 또 같은 시기 이들과 함께 어울렸던 프리데릭 바질과 에뒤아르 마네 같은 작가들 역시 인상주의를 언급하면서 빼놓을 수 없다. 두 사람은 인상주의 그룹전에는 없었지만 인상주의 미술의 성립과 매우 중요한 인연을 가진 작가들이다.



프리데릭 바지유의 스튜디오에 모인 인상파 작가들 그림.

인상주의 미술의 구체적 특징

이들 작가들의 작품에서는 밝은 빛과 자발적인 방법(테크닉), 자연으로부터 직접 그린 그림 그리고 도시적 주제 즉 도시 부르주아의 가정생활과 도시적 삶의 오락이 자주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들은 그룹전을 통해 결합한데다(비록 세잔처럼 몇몇 작가들은 소위 인상파전에 한 번도 작품을 내지 않았지만) 당시의 비평가들은 이들이 공유하는 어떤 양식적 특징이 있다고 여겼다. 예를 들면 캔버스 위에 자연 상태의 빛을 작가가 충동적으로 기록함으로써 환영을 만들어내는 느슨한 화법을 채용한다는 것이 첫째다. 그 다음 키아로스쿠로(명암으로 묘사하는)로 그리는 것을 거부하는 것과 같은 그런 특징이 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특징으로 현대성을 추구함에 있어 그들의 일부는 사진술과 일본 판화에 사용된 형식적인 기법을 많이 차용했다. 예를 들면 과격한 단축법, 트리밍(자르기), 열쇠 구멍으로 보는 듯 조감하는 식의 원근법 등인데 작품의 실례를 들어보자.

먼저 인상주의 작품의 밝은 빛은 1850년대에 발전하던 외광파(外光派)¹⁾ 회화와 바르비종파²⁾ 등의 화풍으로부터 영향을 받았다. 모네 같은 인상파 화가들은 그들처럼 자연으로부터 직접 그린 그림으로 유명하지만 그림에도 불구하고 종종 캔버스를 화실에서 완성했다. 인상주의자들의 가장 큰 차이는 바르비종파의 낭만적인 자연주의와 시골 농민생활의 주제로부터 멀리 벗어나 도시적 주제, 특히 파리 시민의 여가와 오락 장면, 도시의 공원과 교외 풍경으로 주제를 옮겨간 점에 있다.

- 1) 외광파(外光派)란 아틀리에 내에서의 제작을 벗어나 밖으로 나가 실외의(open-air) 넓은 대기와 밝은 빛을 묘사하고자 하는 19세기 중엽 무렵 일부 화가들의 경향을 말한다.
- 2) 바르비종파(派)는 파리를 벗어나 바르비종 지역에 모여 농촌 생활과 자연을 주제로 작품 활동을 펼친 작가들을 이른다. 코로나 밀레와 같은 작가들이 대표적이다.

대표적인 작품 예로는 마네의 1862년 작 <뒤편의 음악회(Music in the Tuileries)>를 시작으로 해서 뒤에 르누아르가 그린 <Le Moulin de la Galette(1876, Oil on canvas, 131x175cm, Musée d'Orsay)>처럼 도시 공원 또는 정원에 다중이 모여 즐기는 음악회나 여흥 모임을 들 수 있다.



마네 Music in the Tuileries.



르누아르 Le Moulin de la Galette.

인상주의 양식은 아마도 단 하나의 가장 성공적인 정체성이 뚜렷한 '운동'으로 평가된다.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여전히 광범위하게 실천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하나의 지적인 유파로서 인상주의는 19세기 말경 다양한 연속적인 운동들로 확장되면서 퇴색되었는데, 그 뒤를 잇는 작가들은 신인상주의나 나비파 등을 포함하여 일반적으로 후기인상주의라는 이름으로 분류한다.

일본 우키요에(浮世畫)의 영향 /

19세기 후반 유럽에 분 일본풍

인상주의 미술의 특징을 보면 일본 판화의 영향이 역력하다. 최근까지 이런 점에 주목하여 기획된 전시회가 계속되고 있다. 2013년 파리 피나코텍에서 반 고흐와 우타가와 히로시게³⁾의 풍경화전을 동시에 열고 그 이듬해에 또다시 그랑 팔레에서 우키요에 비교전을 열어 일본 미술의 직간접적인 영향을 조명했다. 그 뒤로 일본 관련 전시회가 해마다 유럽 곳곳에서 열리고 있는데 올해도 지베르니에 있는 인상주의미술관에서 <자포니즘 / 인상주의>전이 현재 개최 중이다.

지난해에는 일본 측에서도 '호쿠사이와 자포니즘'이란 전시를 도쿄 국립서양미술관에서 열었고 도쿄도미술관에서는 <고흐와 일본>전을 기획해 유럽 근대미술에 끼친 일본 우키요에 미술의 영향을 널리 확인 시켰다. 흥미로운



전시포스터 (자포니즘 / 인상주의) 전.

3) Utagawa Hiroshige (1797-1858)

사실은 우키요에가 서양에 끼친 영향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지만 반대로 우키요에 역시 서양화의 영향으로 더욱 발전하게 되었다는 점을 호쿠사이를 통해 밝힌 것이다. 서양에 가장 유명한 우키요에 작가로 알려진 호쿠사이⁴⁾는 일찍이 데지마 섬을 통해 들어오는 네덜란드 회화에 대한 견문을 활용해 자신의 작품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킨 결과 일본 내에서도 큰 인기를 차지했던 것이다. 일본의 전통에 새로운 감각을 불어넣은 그의 그림이 유럽인들에게 관심의 대상이 되었던 것도 당연한 일이었다.



조르주 쇠라 Le Bec du Hoc, Grandcamp.



호쿠사이 The Underwave off Kanagawa(神奈川沖浪裏).

대중의 사랑을 받던 일본의 근대적인 풍속화

우키요에(浮世畫)는 특히 에도 시대 후기 서민적인 풍속화로써 성행했다. 책의 삽화로 또는 일반 감상용으로 채색 목판화 장르로 독립하여 널리 유통되었다. 이 매체가 본격적으로 유럽으로 전파된 것은 통상이 활발하던 19세기 후반 무렵이었는데 1880년대의 파리는 자포니즘(일본 취미)의 최전성기였다고 한다. 바로 인상주의가 인정받던 시기에도 일치한다.

반 고흐의 유난한 우키요에 사랑

반 고흐가 일본미술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게 된 것도 이 무렵인 1886년 그가 파리로 오면서부터다. 그때 우키요에를 직접 모사하기도 하고 자신의 그림 배경 곳곳에 그려 넣는다. 파리에서 고흐는 거의 일본에 대한 환상에 사로잡혀 살았다. 그가 아를로 가서 그곳에서 일본을 대체할 새로운 색채를 발견하기까지는 책에서 읽은 일본을 자신이 꿈꾸던 이상향으로 생각할 정도였다.⁵⁾

물론 처음에는 파리에서 인상파의 영향을 받아 네덜란드 시절의 어두운 색채를 버리고 밝은 인상파 풍의 작품을 그리게 되었지만, 곧 평평하고 선명한 색면을 사용한 고흐 특유의 화풍은 우키요에의 연구 덕분이었다. 반 고흐뿐만 아니라 인상주의 작가들은 당시 대량으로 유통되는 우키요에를 보고, 그 선명한 색채와 작품의 독특한 구도나 시각에 누구나 매료되었다.

4) Katsushika Hokusai (1760-1849)

5) 반 고흐가 파리에 나온 1886년은 '파리, 이류스토레' 잡지의 일본 특별판이 나와 반 고흐는 이 표지에 사용된 에이센(英泉)의 기녀 그림을 확대 모사하여 자신의 그림 <기녀>에 그려 넣었다.

인상주의 회화에 영향을 준 일본목판화의 내용상 특징들 /

소재와 양식상의 특징

우키요에 작품은 여러 면에서 유럽작가들에게 큰 영향을 끼쳤지만 그 요소를 몇 가지 점으로 요약해보면 첫째는 색채에서다. 채색 목판화에 보이는 명료한 색상 구분과 특히 평면적인 색채가 많은 영향을 주었다. 그리고 눈길을 끄는 과감한 구도라고 생각되는데 이런 점들은 특히 드가의 작품에서 자주 보이는 조감법 같은 구도가 그 예이고 그리고 모네나 후기 인상주의 화가들에 의해 더욱 뚜렷하게 채택되고 널리 일반화된 트림밍 기법의 화면도 한 증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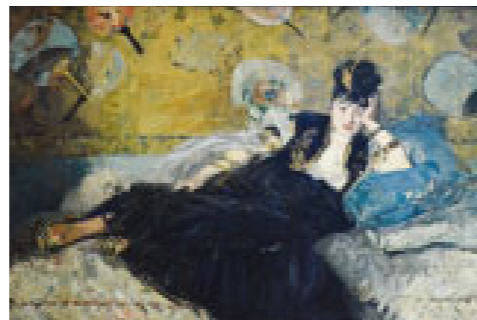
시대적 배경에서 닮은 점

우키요에가 성행했던 일본의 시대적 배경이나 인상주의 운동이 전개될 당시 유럽의 상황에도 서로 비슷한 점이 있다. 특히 각각의 두 양식이 에도(도쿄)와 파리의 시대적 분위기를 잘 나타낸다는 점인데, 번잡해져 가는 에도시대의 도시풍경이나 인상파 풍경화의 도시 공원들 그리고 그 배경에 등장하는 공장들의 굴뚝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는 모습이 모두 근대화와 산업화의 조짐을 반영한다.

두 양식이 대중적 취향에 가까운 미적 형식이란 점에서도 유사점이 있다. 목판화를 주된 형식으로 대량 생산하여 서민의 수요를 충족하였던 만큼 그 내용도 풍속화적이며 목판화의 각선이 갖는 견고함과 생생함 그리고 명쾌한 색면 배치는 대중적인 취향으로 서민에게 환영을 받았다. 인상파 역시 보수적인 관전의 오랜 관행들을 깨고 대중 취향의 보다 자유롭고 발달한 미적 형식을 개척하였다. 인상파의 그런 형식적인 혁신은 유럽 자연주의 미술이 모더니즘으로 전환하는 국면에 끼친 영향이 매우 지대하다.

작가들의 실례 /

마네의 경우는 사실주의자 쿠르베에서 더 나아가 현대 생활의 진실을 그리고자 했다. 1865년 침대에 누워있는 누드의 창녀를 묘사한 그의 작품 <올랭피아>(1863)는 살롱의 관객들에게 충격을 주었지만 당시의 사실을 그린 것이다. 그는 비슷한 스캔들을 수차례 더 야기했지만 그런 모티프에 관한 마네의 주목은 현대생활의 진실이라고 생각되는 장면을 묘사하려 했던 것이며 그것은 에드가 드가, 에밀 졸라를 포함한 많은 19세기 말의 작가들에게 모더니티를 상징하는 주제였다. 그의 작품은 변화하는 계급구조와 프랑스 문화 도덕관의 진정한 초상이었다. 이런 그의 그림 곳곳에 일본 판화의 영향이 오버랩 되어 보인다. 우선 배경에 등장하는 부채들과 일본 그림들이 그렇고 작품 곳곳에 당시 일본풍을 드러낸다. 우키요에 역시 에도 시대 후기 새로운



마네, 부채로 장식된 벽을 배경으로 누워있는 한 부인의 초상.

도시생활이 부흥할 무렵 근대화를 향한 문화변화의 실상을 반영하고 있음은 두말할 나위 없다.

모네의 경우는 지베르니 연못에 가설한 일본교가 단적으로 말해준다. 그의 집은 수많은 일본인 고객들이 방문했고 그들 손에는 어김없이 우키요에 그림 선물이 한두 점씩 들려져 있었다고 한다. 실제로 지베르니에 재현해 놓은 그의 집안 가득 일본 그림들로 장식되어 있다. 그 영향은 모네의 화면 곳곳에 반영된 수없이 많은 효과들에서 드러난다.

드가의 경우는 비록 인상파 창립의 일원이지만, 인물 형상에 대한 집착과 일상생활의 소소한 것에 대한 그의 애착 때문에 그를 일반적인 인상파 작가들의 목적과 방법으로부터 다르게 보게 한다. 1886년에 열렸던 마지막 인상파 전시회에서 드가는 여성 누드들의 입욕, 씻기, 몸을 닦는 동작, 머리카락 빗질 등을 그린 작품들을 선보였다. 드가의 목욕장면들은 마치 소재에서 유사성을 느끼게 하는 우키요에의 목욕탕 장면 한 작품을 떠올리게 한다.

그러나 앞서 말한 드가의 그림들은 형식적인 실험 면에서 최고의 수준이며, 종종 힘든 포즈로 별난 각도로 포착된 듯 보이는 인물들의 자세들을 탐구한다. 각각의 동작과 인물과 형태들의 극적인 자름(cropping)은 사진술로부터 채택된 관례들이지만 이런 것들이 인상주의가 포용한 즉시성이자 일본판화에서도 동시에 확인되는 점이다. 그리고 부조화적인 구성의 구축으로 화면을 자르는 것은 또한 일본 판화에 나타나는 공간과 형식의 비환영적인 취급에서 영향 받았음이 분명하다.

후기인상파들의 경우는 고흐나 고갱에서처럼 그들의 화면에 우키요에의 영향은 현대미술을 향한 혁신적인 변화 가운데 너무 깊게 배어 들어와 있다. 앞서 다른 작가들의 모티프나 소재에서의 영향과 달리 그림의 효과상 나타나는 그것은 상호침투의 결과로 더욱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질적인 변화를 일으켰기 때문일 수도 있다. 두 문화의 교류를 통해서 빚어진 결과라고 말할 수 있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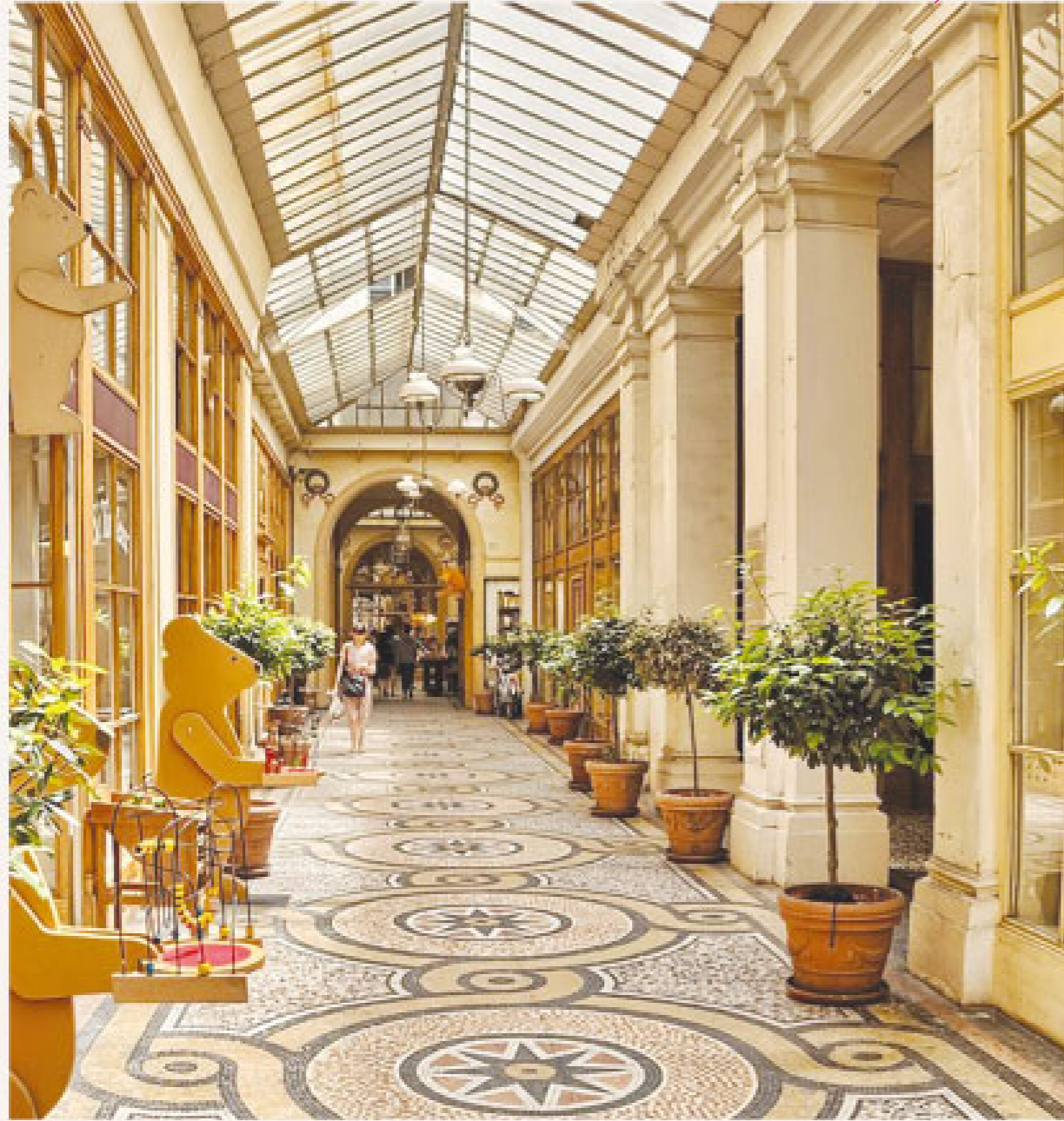


폴 고갱, La Belle Angele, 1889. 고갱은 이 작품에서 인상파 작가들의 재현적인 태도와 전혀 다른 의도를 갖고 있다.



김영동

- 영남대 대학원 미학미술사학과 석사, 동대학원 박사과정 수료(2002년, 미학 미술사 전공)
- 매일신문사 근무(1983~1998)
- 영남대학교, 대구가톨릭대학교 미술사와 미술이론 강의
- '김영동의 유럽미술관 기행'(2014. 10~12) 매일신문 연재
- 한국미술평론가협회, 한국예술문화비평가협회 회원
- 옷는얼굴아트센터 예술아카데미 (김영동의 유럽 미술관 기행) 진행
- 저서 「근대의 아틀리에」 (한티재, 2011)



파리의 골목...
Passage in paris

글·사진 김형욱

Passage



파리를 상징하는 것으로 에펠탑이나 루브르, 개선문을 꼽는다. 파리를 여행한다면 당연히 가봐야 할 곳이기도 하다. 이번 파리 여행에선 에펠탑과 루브르 등 유명 관광지보다 빛을 따라 즐기는 파리의 골목, 파사주를 먼저 찾아가봤다. 파사주를 거닐고 즐겼다면 파리 여행의 중급 레벨 수준? 이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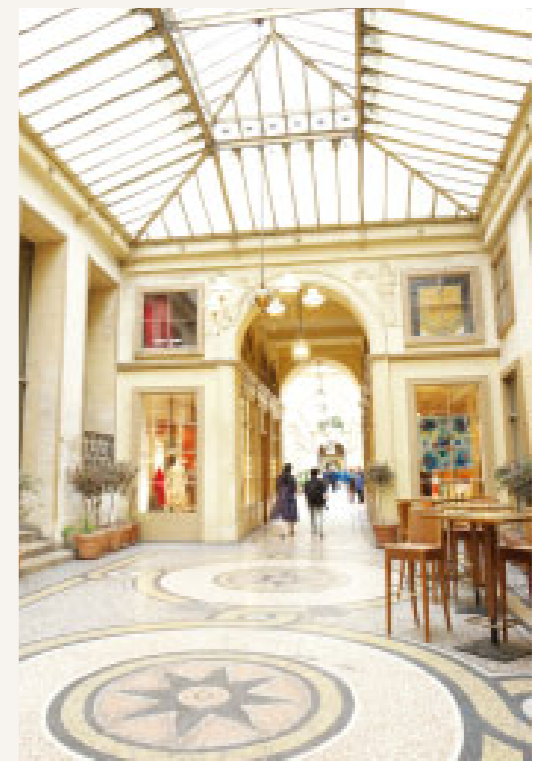
파사주

19세기 파리의 유행은 파사주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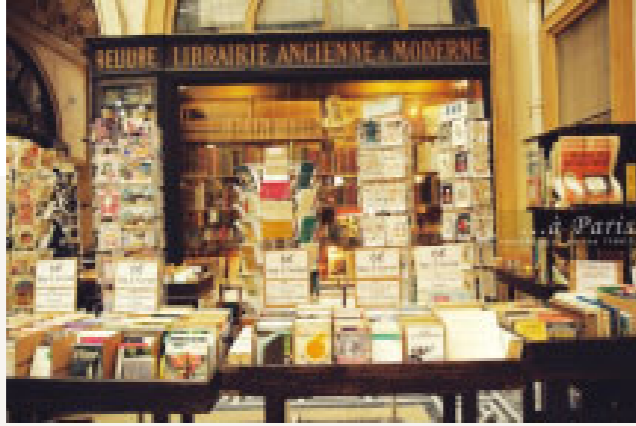
유리천장으로 덮여 비나 눈을 피할 수도 있고 따뜻한 햇볕을 누릴 수도 있도록 만들어진 골목길이 파사주다. 인상주의 화가들이 자주 드나들던 곳. 지금까지 파리의 골목을 아름답게 지켜낸 곳도 파사주다.

20세기 백화점의 출현 전 파사주는 소비와 쇼핑, 엔터테인먼트의 중심 상권이며 유행의 중심지였다. 윈도우 쇼핑의 시초가 된 곳이 바로 파사주다. 한 때 150개의 파사주가 있을 정도로 인기가 많았지만, 현재는 20개 정도 남아있다. 그래서인지 더욱 낭만의 냄새가 짙게 풍겨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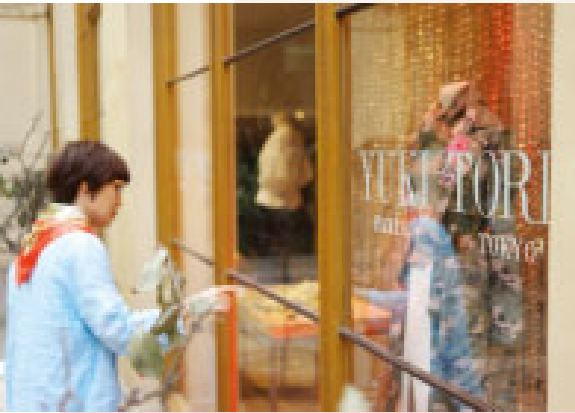
파사주는 그야말로 골목길이라 입구를 찾아가기도 쉽지 않다. 건물사이의 공간에 유리천장을 올려 만든 곳, 건물에 공간을 내어 만들어진 곳이 많다. 파사주의 가장 큰 특징은 유리천장과 가스등이다. 지금도 낭만, 모던, 인상주의라는 단어와 어울리는 공간으로, 들어서는 순간 우아한 1800년대의 파리로 돌아가는 느낌이 든다.



in paris



골목마다 카페, 서점, 소품가게, 의상점, 골동품점들이 열기설기 얽혀져 있다. 유명 카페가 모여 있는 식당가 'Panorama', 장난감 가게들이 즐비한 'Jouffroy', 골동품 골목으로 이름난 'Verdue' 등 여러 유명한 파사쥬 중 가장 고급스러운 분위기의 'Galerie vivienne'(갤러리 비비안)을 찾았다. 루브르 근처에 있어서 루브르 관광과 함께 하면 좋은 코스. 위치는 루브르 옆 골목의 'Palais Royal'(팔레 로알) 가든의 긴 나무 벽 통로를 통과하면 찾을 수 있다.



Galerie vivienne



Parisien

파리지앵처럼

노천 카페에서 차를 마시는 사람들, 상가를 기웃거리는 사람들 중 관광객은 거의 없고 모두 프랑스인들만 보인다. 관광객 홍수의 루브르나 에펠타워를 지나 이곳을 거닐어 보니 진짜 파리의 속살을 들여다 본 것 같았다.

비를 피하며 장사를 하고자 하는 지혜에서 생겨났지만, 터키의 바자르와는 달리 유리창으로 만든 지붕을 골목 위에 드리워 장소마다 아름다움을 극대화한 예술성이 넘쳐났다. 이제는 천정에서 비춰지는 빛으로 덮은 바닥의 타일까지도 이 공간을 더 고급스럽게 만들고 있었다.

파사쥬에서는 파리지앵처럼 19세기 파리를 거닐어 볼 수도 있다. 빛의 흐름에 따라 변하는 파사쥬의 소소한 매력이 두고두고 가슴에 남는다. 대형 관광장소를 방문할 때와는 또 다른 느낌이다. 올 여름 파리를 방문할 계획이라면 시간을 내어 꼭 이곳을 찾아보시길 바란다.



김형욱
- 프리랜서
2010년부터 세계의 도시와 오지 탐험여행 등
테마 여행을 즐기는 생활여행자





할아버지의 —— 낡은 시계

글·자료 고선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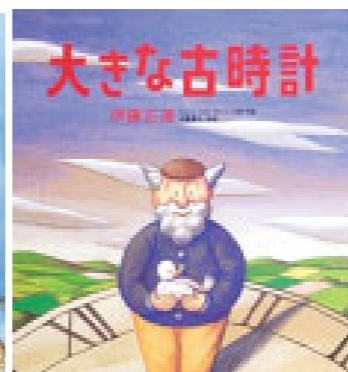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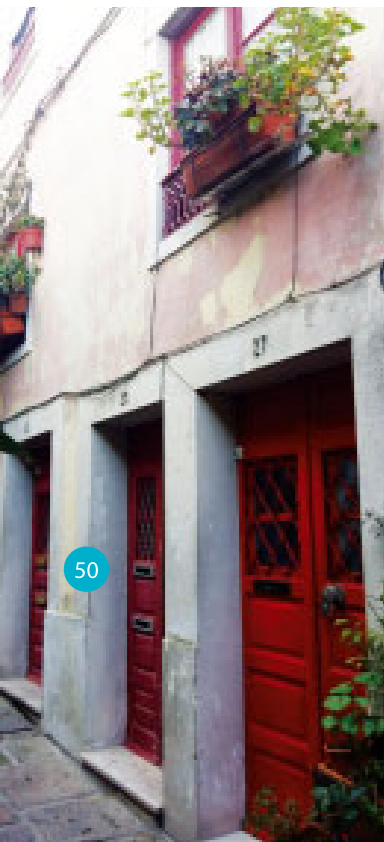
탐이 났다. 가격부터 물었다. 150유로란다. 주머니를 뒤지고, 운동화 밑창에 칸 100유로 한 장을 꺼냈다. 가파른 언덕 위의 포르투 대성당을 다녀온지라 지폐에서는 '콤팩한' 발 냄새가 느껴졌지만 이런 건 상관할 바가 아니었다. 여기는 100년 전, 200년 전 물건들이 뜨거운 태양 아래 나열되어 “나 살아있다”고 외치는 벼룩시장이 아닌가. 그러니 '콤팩한' 냄새가 한가득 잠겨있는 거리다.

오르막 내리막이 급한 좁다란 골목, 땅보다는 하늘이 더 가깝게 느껴지는 길들을 꼬불꼬불 걷다가 다다른 모퉁이. 여행자의 너들너들한 지도에는 보이지 않는 작은 공간에 어느 집 거실을 하나 옮겨놓은 듯한 물건들이 빼곡히 나그네의 발길을 멈추게 했다. 어디서부터 뒤져야 할지 가슴이 뛰고 흥분된다. 이걸 알함브라궁을 모델로 했다는 볼사공전 앞에서, 고딕양식의 위엄이 넘쳐나는 상 프란시스투 성당 앞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나의 작은 기쁨이었다.

나를 유혹한 물건은, 양 갈래 머리 땅아 학교 다닐 때 불렀던 '할아버지의 낡은 시계'의 그 시계다. “90년 전에 할아버지 태어나던 날 아침에 받은 시계란다”, “90년 동안 쉬잠고 푹푹 푹푹 우리나라 친구들도 이런 가사의 노래를 불러본 적이 있을 것이다. 나는 일본에서 중고등학교를 다녔는데, 일본친구들이 참으로 많이 좋아하는 노래

다. 학교 합창대회 때는 빠지지 않는 곡이었다. 누구나 흥얼거리는데, 누구나 알고 있는 멜로디에 심오한 가사는 한해 한해 다르게 변하는 성장기의 마음에 차곡차곡 색을 달리 하면서 담겨졌다. 1876년 헨리 클레이 위크가 발표한 미국의 대중가요이며, 발표 당시 약부가 100만 부 넘게 팔렸다는 사실을 안 것은 최근의 일이다.

비록 가사는 지금의 내용이 아니지만 일본은 1940년 이 멜로디의 곡을 선보였다. 레코드 판매 기록을 보니 적지 않은 관심을 받았던 것 같다. 그리고 1962년 NHK '모두의 노래(みんなのうた)'에서 '할아버지의 낡은 시계'라는 곡명으로 소개되었다. '모두의 노래'는 단 5분의 방영시간에 2곡



정도 소개하는 작은 프로그램인데, 1961년부터 시작된 NHK 장수 프로그램의 하나로 그 영향력은 적지 않다. 동요와 외국 민요만이 아니라 이 프로그램을 위한 오리지널 곡도 있다. 여하튼 여기서 소개된 곡들은 시청자들의 관심을 받으며, 학교의 합창대회 등 행사장에서 채택되는 일이 많았다. 여기서 발표된 곡 중에는 100만 장을 돌파한 히트곡도 있다.

여하튼 이렇게 소개된 ‘할아버지의 시계’는 일본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 사랑하는 노래가 되었다. 아이들의 노래라고만 알고 있었는데, 2002년에는 히라이 겐(平井堅)이 이 곡을 노래해서 크게 인기를 얻었으며, 그해 12월 31일 최고의 가수들을 선발해서 남녀 대항을 하는 NHK 홍백가합전(紅白歌合戦)에서도 이 곡을 노래했다. 2003년에는 일본고등학교야구대회 개최식 입장행진곡으로도 선정되었다. 사실이 노래는 할아버지의 죽음을 통해서 생과 사를 생각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보니 그림책으로도 애니메이션으로도 잔잔한 감동으로 다가왔다.

“길고 커다란 마루 위 시계는 우리 할아버지 시계”라고 시작하는 가사의 원본은 “할아버지의 시계는 벽에 걸기엔 너무나 커서 90년 동안이나 마루에 세워 놓았어요. 그 시계는 할아버지 키의 반도 넘었지요”라는 사실을 영어책에서 확인한 기억이 있다. 그러니 벼룩시장에서 나를 유혹하는 시계는 할아버지 시계라고는 할 수 없는 수준의 시계다. 높이 80센티미터의 상당한 크기이지만 벽에 걸 수 있는 것이니 말이다. 그래도 이게 어딘가. 18세기 독일에서 만든 것이라는 말에 귀를 쫓긋 세우고 만지작만지작

하면서 학창시절 그림으로만 기억했던 물건을 감히 가질 수 있다는 생각에 “내 인생 성공했다” 이런 거창한 말까지 떠올리면서 신났다. 외롭고 힘들었던 어린 시절을 보상받는 그런 느낌마저 받았으니 생각의 날개는 멀리멀리 어디까지 날아갈지 모르는 포르투의 오후였다.

‘글로벌’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설명해야할지 모르나, ‘할아버지의 낡은 시계’는 글로벌이다. 18세기 독일, 19세기 미국의 대중가요, 이 노래를 동요라면서 부르고 성장한 일본 아이들, 그 리듬을 따라서 흥얼거리는 우리나라 아이들. “할아버지의 커다란 시계는 무엇이든지 알고 있지”, “90년 동안 쉬잠고 똑딱 똑딱 할아버지와 함께 똑딱 똑딱” 설사 지금은 멈추었다고 해도 ‘할아버지의 시계’는 지구 어디에서 한 가닥 기억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나는 이것을 글로벌이라고 말하고 싶다.



고선운
 - 백석예술대학교 외국어학부 겸임교수
 - 한국외국어대학교 일어일문학 문학박사
 - 서울대학교 동양사학과 졸업
 - 저서 《토끼가 새라고?》, 《헤이안 시대의 사랑가 풍류》 등 다수



심리적 상처와 사랑의 치유

최근 들어 전 세계에 4차 산업혁명이 대두해 인류의 사고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전개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4차 산업혁명의 핵심적 화두인 인공지능과 빅데이터가 인류의 관심 중심에 위치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정작 인간 자신의 소외와 내면의 심리적 문제들이 더욱 심화되어 심각한 사회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실정이다.

현대에 들어서 여러 사회적 여건들로 말미암아 이제는 학자쪽을 넘어서 1인 가구가 준비한 시대로 이미 접어들었으며, 그로 인해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흔히 '혼밥', '혼술'이라는 말을 심심찮게 듣게 되었고, 또한 독거노인의 '고독사'라는 슬픈 단어도 이제는 어색하지 않게 되었다. 이러한 여러 상황들로 인하여 인간은 과거에 비해 심리적 상처들을 더 많이 안고 살아가게 되었으며, 물론 인간의 심리적 상처들에는 각각의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앞에서 언급한 인간관계의 단절과 소외가 중요한 원인이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더 극심한 인간의 심리적 장애를 접하게 되면 현대 심리학과 정신병리학으로도 그 이유를 한마디로 단언하기 어려울 정도로 복잡하게 꼬인 미로 앞에 서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심리적 상처와 장애를 다룬 네 편의 영화를 차례로 보면서, 이러한 상처와 장애를 우리는 과연 어떻게 이해할 것이며, 과연 어떻게 치유할 수 있을지를 함께 숙고해보으로써 현대인의 소외와 심리적 문제들에 대한 해답을 함께 찾아보고자 한다. 어릴 때 아버지로부터 학대를 당하여 다른 사람을 신뢰하지 못하게 된 수학 천재 윌 헌팅(영화 「굿 윌 헌팅」)과 강박증에 시달리는 로맨스 소설 작가 멜빈 유달(영화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 조현병에 시달리면서도 신경제학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여 노벨상을 수상한 천재 수학자 존 내쉬(영화 「뷰티풀 마인드」) 그리고 역시 조현병에 시달렸던 천재 피아니스트 데이비드 헬프갓(영화 「샤인」), 이 네 주인공의 삶을 통해 우리도 동시대를 살아가면서 비록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다들 내면 한구석에 가지고 있을 법한 심리적 상처와 장애를 과연 어떻게 치유할 수 있을지 함께 살펴보기로 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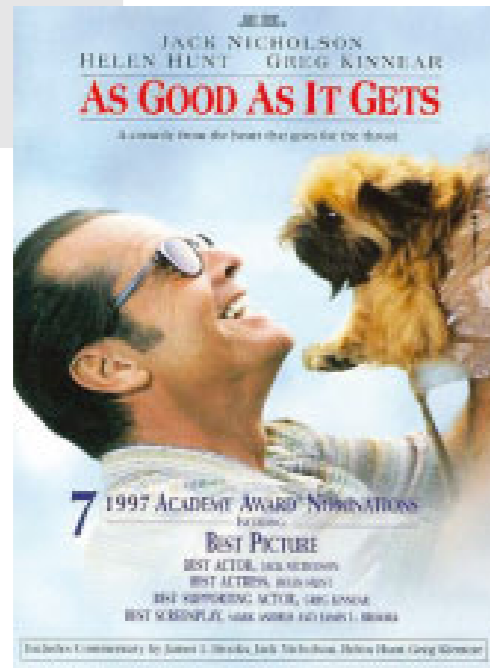


Good Will Hunting

영화 「굿 윌 헌팅」은 주연 배우 맷 데이먼이 직접 하버드 대학 재학 시절 과제로 작성한 소설을 원작으로 하고 있으며, 빈민가에 사는 수학천재인 윌 헌팅(Will Hunting)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빈민가에서 일용직 노동자로 살고 있는 윌은 수학에 천부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다. 욕실의 거울에 난해한 수학문제의 풀이를 쓰고 지우기를 반복하는 일이 취미인 윌은 MIT에서 청소부로 일하고 있다. 수학과 교수이자 필즈 메달(수학계의 노벨상) 수상자인 램보 교수는 석사과정의 학생들을 시험하기 위해 교실 밖 복도 칠판에 정말 풀기 힘든 난해한 문제를 적어 놓고 그 문제를 풀어보라고 하는데, 며칠이 지난 어느 날 누군가가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칠판에 적어 놓자 수학과는 물론

전 대학 구성원들은 과연 누가 그 문제를 풀었을까 궁금해하게 된다. 그러나 아무리 수소문해보아도 강의 듣는 학생 중에는 그 문제를 푼 사람이 없었다. 그러던 중 램보 교수가 강의실을 나오다가 복도 칠판에 낙서하고 있는 윌을 보게 되고, 그것이 낙서가 아닌 또 다른 어려운 수학 증명문제를 해결한 것이라는 걸 알게 된다. 이처럼 MIT 수학과 교수들도 풀지 못하는 문제를 장난치듯 쉽게 풀어내는 수학천재 윌은 사실상 어린 시절의 아픈 기억 때문에 늘 주변사람들을 멀리하고 결국 주변사람들이 떠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심각한 심리적 문제를 지니고 있었다.

어떤 폭행사건에 연루되어 재판을 받게 된 윌은 수감당하지 않는 조건으로 의무적으로 받아야만 하는 상담 횟수를 채우기 위해 심리학과 교수인 손 교수를 만나게 되고, 이것이 윌의 마음을 조금씩 여는 계기가 된다. 윌은 인간관계에서 늘 겪는 동일한 패턴으로 인해 여자친구인 스카일라와의 관계가 소원해졌을 때, 손 교수에게 정기적으로 상담을 하게 된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손 교수 연구실 앞에서 손 교수와 램보 교수가 자기 때문에 서로 말다툼하는 것을 듣게 된다. 램보 교수는 윌의 수학적 천재성이 빛을 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고, 손 교수는 윌이 자신의 아픈 과거를 모두 치유함으로써 과거에 간혀 허우적거리는 삶에서 진정으로 구해주고자 하는 것이다. 손 교수가 자신을 도구적인 인간이 아니라 전인적인 인간으로 대하고 있다는 것을 새삼 깨달게 된 윌은 그날 상담을 통해 결국 손 교수에게 마음을 서서히 열게 되고, 손교수가 "It's not your fault.(그건 네 잘못이 아니야.)"를 연발하며 윌을 진심으로 포용할 때 그의 마음 문이 완전히 열리고 마음의 상처를 치유 받게 된다.



As Good As It Gets

영화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에서 주인공 멜빈 유달(잭 니콜슨 분)은 강박증세가 있는 로맨스 소설 작가인데, 그는 냉소적인 성격의 소유자로서 다른 사람들의 삶을 경멸하며, 때론 신랄하고 비열한 독설로 비꼬기도 한다. 그는 강박증으로 인하여 길을 걸을 때면 보도블록의 틈을 밟지 않으려 하고, 또한 다른 사람들과도 부딪히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 늘 우스꽝스럽게 뒤통거리게 된다. 그는 항상 가는 식당에만 가며, 언제나 똑같은 테이블에 앉고, 또한 직접 지니고 온 플라스틱 나이프와 포크로만 식사를 한다. 이러한 강박증세로 인해 모두들 그를 꺼려하게 되는데, 하지만 단 한 사람, 식당의 웨이트리스로 일하는 캐롤 코넬리(헬렌 헌트 분)만은 예외이다. 언제나 인내심을 가지고 멜

빈을 대하는 그녀는 그의 강박적인 행동을 참고 식사 시중을 들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다. 그러나 그녀에게도 말하지 못할 어려움은 있었다. 그녀는 천식으로 괴로워하는 어린 아들이 있지만, 제대로 된 치료도 한번 받아보지 못할 정도로 궁핍한 살림을 혼자 힘으로 꾸려나가야 하는 상황에 처해있는 것이다.

한편 멜빈이 특히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중의 하나는 이웃에 사는 게이 화가인 사이먼인데, 그는 멜빈이 자신의 생활 방식을 싫어하며 또한 그의 애완견 버텔도 미워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 사이먼의 작품 중개인이자 연인이기도 한 프랭크는 멜빈이 사이먼에게 못되게 굴 때마다 물리적인 위협으로 멜빈에게 으름장을 놓곤 한다. 하지만 모든 것이 일시에 변하게 되는 엄청난 사건이 발생하게 된다. 사이먼이 강도들로부터 구타를 당해 입원하게 됨으로써, 멜빈은 뜻하지 않게 사이먼의 애완견 버텔을 돌봐주어야 하는 난처한 상황에 빠지게 된 것이다. 처음에 멜빈은 버텔을 엄청나게 싫어하지만, 결국 이 애완견으로 인해 그의 얼음장과도 같았던 마음이 서서히 녹기 시작한다.

멜빈은 이를 계기로 해서 애완견 버텔을 잘 돌보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사이먼과 캐롤의 개인적인 곤경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게 된다. 어느덧 자신 내면의 따뜻한 인간미를 발견하게 된 멜빈은 버텔의 주인인 사이먼과의 우정을 가꾸어 나가게 되고, 결국 자신에게 따뜻하게 마음을 열어준 유일한 여인인 캐롤과의 진정한 사랑을 시도하기에 이른다.

Beautiful Min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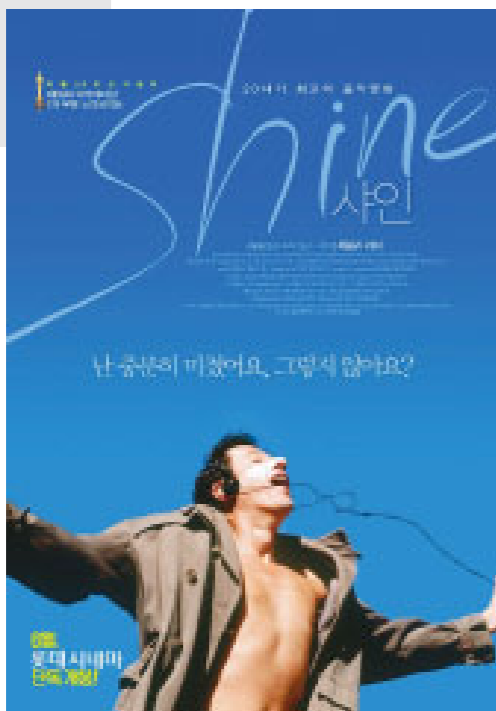
영화 「**뷰티풀 마인드**」의 주인공 존 내쉬(러셀 크로우 분)는 실존인물로서, 1940년대 최고의 엘리트들이 모이는 프린스턴대학교 대학원에 장학생으로 입학했다. 그는 웨스트버지니아 출신의 뛰어난 두뇌를 지닌 천재인 동시에 괴짜인데, 자신의 기숙사 유리창을 노트 삼아 단 하나의 문제에 매달리곤 한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들과 함께 들른 선술집에서 금발 미녀를 둘러싸고 벌이는 친구들의 경쟁을 지켜보다가 심광과도 같이 직관적으로 ‘균형이론’의 단서를 발견하고 나서 27쪽짜리 논문을 발표함으로써 20세의 청년 존 내쉬는 일약 학계의 스타덤에 오르게 된다. 이후 MIT 교수로 임용되어 승승장구하던 그는 정부 비밀요원 윌리엄 파처를 만나 소련의 암호 해독 프로젝트에 비밀리에 투입되면서 점점 망상의 미국 속으로 빠져 들어가게 된다.



존 내쉬는 기존 게임이론에 대한 새로운 분석으로 제2의 아인슈타인이라 불린 인물이지만, 50년 동안 조현병에 시달리기도 한다. 그러나 그는 이러한 악조건을 이겨내고 1994년 노벨상을 수상하는 극적인 삶을 살아낸다. 바로 이 무렵 점점 심각해지는 존의 내적 고통인 망상과 MIT에서 그의 강의를 듣던 여학생으로서 그와 결혼한 후 그를 치유하기 위해 치열한 삶을 감당해내고 있는 알리샤(제니퍼 코넬리 분)의 진정한 사랑의 한판 승부가 벌어지게 된다. 결국 그는 노벨상 수상식에서 발표한 수상소감으로 아내의 사랑에 대한 고마움을 함축적으로 표현한다. “제 인생의 가장 중요한 발견은 신비로운 현신적 사랑이었습니다. 당신은 내가 존재하는 이유이며, 내 모든 존재의 이유입니다.”

Shine

영화 「**샤인**」의 주인공 데이비드 헬프갓(제프리 리시 분)은 실존인물로서, 오스트레일리아로 이주한 폴란드계 유대인 가정의 외아들로 태어났는데, 그의 아버지는 나치 치하에서 부모와 형제를 모두 잃는 불행



겪어서 가족이 헤어지는 데 대해 엄청난 트라우마를 갖고 있는 인물이다. 데이비드의 아버지는 어린 시절 음악가가 되고 싶었으나 아버지의 반대로 꿈을 이루지 못했는데, 이제 아들을 통해서 자신의 꿈을 이루고자 한다. 데이비드는 어릴 때부터 피아노에 남다른 재능을 갖고 있었으며, 그의 비범한 재능을 알아본 저명한 음악가가 그에게 미국 음악대학의 장학생으로 유학을 권유한다. 하지만 그를 곁에 두고 싶어 하는 아버지의 집착으로 그의 유학은 좌절되고 만다.

이후 데이비드는 노(老) 여류작가 캐서린과 우정을 나누며 정신적으로 성장하게 된다. 그러던 중 그는 영국의 왕립음악대학으로부터 장학금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게 되고, 캐서린의 지지에 용기를 얻은 그는 이번에는 아버지의 반대를 무릅쓰고 유학길에 오른다. 이런 데이비드에게 아버지는 “지금 가면 다시는 못 볼 줄 알

라.”는 악담을 쏟아 부는다. 런던의 왕립음악대학에서 그는 전설적인 세실 파크 교수의 지도를 받게 되고, 파크 교수는 그에게서 천재적인 광기를 발견한다. 데이비드는 유서 깊은 로열 앨버트 홀에서 오케스트라와 함께 협연할 수 있는 오디션에 참가하기로 한다. 그가 준비한 오디션 곡은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협주곡 제3번인데, 그가 어릴 때부터 언젠가는 정복해야 할 거대한 산처럼 동경해왔던 곡이다. 데이비드가 이 곡을 오디션곡으로 택했다고 하자 파크 교수는 미치지 않고서는 그 곡을 연주할 수 없다고 단언한다. 이에 대해 데이비드는 “저는 충분히 미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라고 대답한다. 이전부터 강박적인 행동들이 나타나던 데이비드는 특히 이 곡을 연습하면서 더욱 정신에 손상이 가기 시작했다. 그는 오디션 무대에서 온몸의 열정을 쏟아 이 곡을 연주한 후 그만 무대 위에 쓰러지고 만다.

조현병에 걸린 데이비드는 그 후 세상 사람들에게 완전히 잊혀진 존재가 되어 10여 년 동안 정신병원을 전전하며 살아간다. 그러던 어느 날 과거의 천재를 우연히 알아보게 된 베릴이라는 여성의 도움으로 그는 다시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된다. 그 후 우연히 데이비드는 예전의 실력을 되살려 한 카페의 피아니스트로 일하게 되는데, 그는 여전히 현란한 피아노 실력으로 카페 안에 있는 모든 고객들을 놀라게 한다. 그는 카페에서 피아노를 치게 되면서 비로소 자기 나름대로 세상 사람들과 소통하는 법을 배우게 된다. 그러던 어느 날, 오랫동안 연락이 두절되었던 아버지가 그를 찾아오는데, 잊혀진 피아노 천재가 카페에서 피아노를 치고 있다는 신문 기사를 접하고서 찾아온 것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의 아버지는 여전히 아들과 소통이

되지 않는 장면만을 연출하고는 비에 젖은 거리를 걸어서 쓸쓸하게 돌아간다. 그런 아버지의 등 뒤에 두고 데이비드는 조용히 혼잣말로 작별인사를 고한다.

그는 다행스럽게도 이후에 만나게 된 점성술사 질리언과 결혼하게 되고, 그녀의 헌신적인 사랑으로 점차 정신적 안정을 찾게 되며, 마침내 그녀가 마련한 콘서트에서 감동적인 연주를 한 후에 관객들로부터 열렬한 박수를 받게 된다. 훗날 아내와 함께 아버지의 무덤을 찾은 그는 평생 자신을 압박해왔던 과거의 정신적 트라우마를 어느 정도 극복하고 과거와 화해함으로써 피아니스트로서 또한 한 인간으로서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에 이른다.

이 네 편의 주옥같은 영화들을 통해 우리는 심각한 심리적 문제를 안고 있는 천재적인 주인공들을 만나 볼 수 있었다. 이들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 비범한 천재성을 타고났지만, 반면 다른 사람들과 진정으로 소통할 수 없는 마음의 상처와 장애를 동시에 안고 있는 인간들이었다. 이러한 마음의 상처와 장애는 결국 인간 대 인간의 진정한 만남을 통해서만 치유될 수 있다고 이 소중한 영화들은 웅변하고 있다. 윌 헌팅에게는 진정한 휴머니스트 손 교수가, 멜빈 유달에게는 넓은 아량의 사랑스런 여인 캐롤이, 존 내쉬에게는 제자이자 헌신적인 아내 알리샤가, 데이비드에게는 무한 긍정의 힘을 지닌 점성술사 아내 질리언이 이들 마음의 상처와 장애를 진정으로 받아주고 담아내며, 휴머니즘과 사랑으로 치유해준 장본인들이었다.

요즈음 우리네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는 초미세먼지와도 같이 우리네 마음을 점점 조여 오는 각박한 현대를 살아가면서, 마치 공기청정기와도 같은 진정한 멘토와 진정한 사랑이 그리워지는 건 필자만의 소망은 아니리라! 우리 자신이 동시대를 살아가며 힘들어하는 상대방에게 기댈 수 있는 언덕으로써, 산소 같은 멘토로써, 아름다운 수채화 같은 사랑으로써 살아갈 순 없을까 깊고도 진지한 사색에 잠겨본다.



정찬호

- 동산Wee센터 팀장
- 계명대학교 일반대학원 철학석사
- 계명대학교 일반대학원 문학박사(독어독문학 전공)
- 독일 하이델베르크 대학교 박사과정 수료
- 경북대학교 일반대학원 교육학과 박사과정 (상담심리 전공)
- 대구광역시교육청 학부모 역량강화 및 이동학대 예방교육 강사
- 법무부 법사랑위원 대구경북지역연합회 운영위원
- 대구광역시교육청 학교흡연예방교육 강사
- 수련감독 상담전문가(한국청소년상담학회)
- 전) 계명대학교, 울산대학교, 영남신학대학교 외래교수



'2018 봄바람 콘서트'

그윽한 클래식 향기, 봄바람을 타고 오다

글 김은주(문화정책실장) / 사진 달서문화재단

살랑거리는 봄바람이 기분 좋다. 봄바람을 따라 그윽한 클래식의 향기가 마음속으로 들어왔다. 4월 27일 저녁 7시30분 '2018 봄바람 콘서트'가 (재)달서문화재단 출범 4주년 기념과 청룡홀 재개관 축하 음악회로 웃는얼굴아트센터 청룡홀에서 열렸다.

Concept



Music

'2018 봄바람 콘서트'는 리모델링 후 새로워진 청룡홀 재개관의 첫 무대로 열린 만큼 많은 사람들의 관심 속에 개최되었다. 지난해의 열린 콘서트와는 다른 콘셉트인 오케스트라 초청 공연 및 협연 등 정통 클래식 무대로 마련했다. 클래식 공연을 통해 음향, 조명, 무대의 우수함은 물론 새로 설치된 반사판의 효과, 무대에서 객석, 조정실까지 공연장을 음악으로 가득 채우는 울림, 편안한 객석 등 관객에게 달라진 청룡홀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진행하고자 했다.

이번 콘서트는 김민 음악감독이 이끄는 코리안 챔버 오케스트라(구 서울바로크합주단) 단원 30명과 첼리스트 김호정 교수(경북대)가 출연해 고전음악에서부터 실험적인 현대음악까지 아우르는 연주를 들려주었으며, 다른 공연장에서는 접하기 힘든 레퍼토리로 클래식의 매력을 관객에게 전파했다.



김민 음악감독

연주에 앞서 김민 음악감독을 잠시 만났다.

"청룡홀 재개관 축하와 함께 달서문화재단의 진취적인 발전을 위해 고전음악에서부터 실험적인 현대곡까지 다양하게 구성했다"고 설명하면서, "중규모 공연장의 음향과 조명, 무대 시스템에 부합하는 좋은 사운드를 들려주고자 챔버 오케스트라가 들려줄 수 있는 최상의 레퍼토리들을 심사숙고해서 선보이게 되어 단원들도 무척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훌륭한 작품에 뛰어난 오케스트라의 연주임에 틀림없지만, '자칫 어렵게 여겨질까 봐, 또 재개관 첫 공연이기에 별다른 문제가 없을지...' 연주 시작 전까지 노심초사할 수밖에 없었다. 공연 내용만으로도 마음이 벅찼는데, 김민 음악감독과의 대화로 연주에 대한 걱정을 떨쳐버렸다. 연주는 연주자의 몫, 감상은 관객의 몫. 연주자, 스태프, 관계자들의 긴장은 고조에 달했고 공연은 시작되었다.

코리안 챔버 오케스트라의 첫 무대는 젠킨스(K. Jenkins)의 '팔라디오 합주 협주곡(Palladio Concerto Grosso for string orchestra)'로 시작했다. 건축가 팔라디오의 건축물에서 영감을 받아 곡의 제목을 붙였으며, 실험적이면서도 서정성이 가득한 현대음악으로 청중의 귀를 쫓긋하게 했다. 정통 클래식을 처음 접하는 관객들을 위해 김민 음악감독이 직접 연주곡에 대한 설명을 곁들인 후 연주가 이어졌다.

두 번째 연주는 첼리스트 김호정 교수(경북대 음악과)가 하이든(F. J. Haydn)의 '첼로협주곡 1번 다장조(Cello Concerto C major Hob. VIII:B)'를 코리안 챔버 오케스트라(지휘 : 김민 음악감독)와 함께 협연했다. 3악장으로 구성된 하이든 '첼로협주곡 1번'은 귀에 익은 멜로디로 고전음악의 진수를 들려줬으며, 경쾌함과 우아한 서정미

등 하이든의 음악세계를 나타내는 첼로협주곡으로 유명하며, 김호정 첼리스트의 호소력 짙은 연주에 코리안 챔버 오케스트라의 간결하면서도 경쾌한 연주가 더해져 어느 때보다 안정적인 호흡이 담긴 공연을 선사했다. 세 번째 무대는 야나체크(L. Janacek)의 '현을 위한 모음곡(Suit for String)'. 6개의 악장으로 구성된 모음곡으로 체코의 민속적인 선율과 세레나데, 현대적 악풍이 함께 어우러져 현악의 다양한 음색을 감상할 수 있는 다소 어려운 작품이었다. 대구를 비롯한 지역 공연장에서는 좀처럼 접하기 힘든 곡이었으며, 코리안 챔버 오케스트라 특유의 정교한 주법으로 들려준 야나체크의 '현악 모음곡'은 청중과 음악애호가들로부터 갈채를 받았다.

마지막 연주곡은 엘가(E. Elgar)의 걸작인 '현악 4중주와 챔버 오케스트라를 위한 서주와 알레그로(Introduction & Allegro for string quartet & string orchestra G major, Op.47)'였다. 웨일즈 지방의 민요 선율을 기본테마로, 따스한 분위기에서 변화무쌍한 알레그로 형식으로 이어지며, 푸가형식의 선율이 드러나는 웅장한 선율이 돋보이는 아름다움 작품으로, 연주 시작부터 청중들의 귀와 마음을 사로잡았으며, 기립 박수를 받는 등 찬사를 받았다.

인터미션 없이 1시간 반 동안 진행됐던 봄바람 콘서트 연주는 앵콜로 이어졌다. 코리안 챔버 오케스트라는 앵콜도 남달랐다. 북유럽 음악을 오케스트라 버전으로 편곡한 'Erokirje Heilige'을 앵콜곡으로 들려줬다. 실연한 남자가 술에 취해 슬퍼하는 내용의 작품을 김민 음악감독이 병과 작은 스펀을 들고 퍼포먼스를 겸한 지휘를 선보여 관중들은 폭소를 하며 즐거움을 한가득 안은 채 공연을 마무리했다.

특히 이번 공연은 음악을 만들어가는 오케스트라 단원들의 화합과 협업정신, 진지한 열정, 감상의 묘미가 아주 돋보이는 훌륭한 무대였다.

구미에서 공연을 보러 온 최서진씨는 "오케스트라 단원 악기별로, 각각 연주하는 소리가 모이고 어우러져 이렇게 훌륭한 하나의 음악을 만드는 과정은 정말 경이롭다"며, "평소 접하기 어려운 젠킨스, 야나체크, 엘가의 곡은 너무 인상적이었고, 이런 훌륭한 음악무대를 지역에서 접할 수 있어 더없이 행복하다"며 함께 온 친구들과 과 멋진 공연에 대해 엄지를 치켜세웠다.

무엇보다 청룡홀 재개관 첫 공연을 순조롭게 무사히 마친 것에 감사했다. 코리안 챔버 오케스트라와 김호정 첼리스트의 멋진 연주와 김민 음악감독의 깔끔한 지휘와 진행, 더불어 관객들의 호응에 기분 좋게 마무리할 수 있었다. 모두가 떠난 공연장에 서서, 여전히 머릿속에 흐르는 선율과 함께 다음 무대에 대한 많은 생각들이 떠올랐다. 지역민들의 문화적 호기심을 어떻게 채워나갈지...^^

김호정 첼리스트



청룡홀 재개관 기념 대구시립예술단 초청공연

예술의 공간, 감동의 공간으로 거듭나는
웃는얼굴아트센터 청룡홀

글 · 사진 허정무(웃는얼굴아트센터 공연담당)

웃는얼굴아트센터 청룡홀이 10개월간의 리모델링을 거쳐 지난 4월 재개관하였다. 재개관 공연 <봄바람 콘서트>로 호평받은 청룡홀의 변화된 모습을 더 많은 관객들에게 선보이고자 대구시립무용단과 대구시립국악단을 초청하는 특별한 공연을 마련하였다. 이번 시립예술단의 재개관 기념 특별공연을 시작으로 예술과 감동이 있는 양질의 공연을 통해 웃음과 행복을 전하여 주민이 찾고 싶은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자 한다.



대구시립예술단의 단원 창작공연

국내 최초의 국공립 현대무용단체이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우수한 안무자들과 최고의 기량을 갖춘 무용수들로 구성되어있는 대구시립무용단(예술감독 김성용)이 준비한 무대는 단원창작공연 <나는 무용수다>였다. 단원창작공연은 2010년 시작된 이후 많은 사랑을 받아온 시립무용단의 대표 기획프로젝트로 대구시립무용단 소속 무용수들이 직접 자신들의 이야기로 대본과 안무를 만들어 무대에 올리는 프로젝트이다.

나는 무용수다

이번 공연은 내부 공모를 통해 선정된 5개의 작품으로 구성되었는데, 사회적인 이슈나 인간의 정체성과 고민 등 다양한 소재들로 무대를 채워나갔다. 첫 번째 작품은 송경찬이 안무한 '아름다운 동행'이었다. 위안부 할머니의 이야기라는 다소 무겁게 느껴지는 사회적 이슈를 무대 위로 풀어내는 안무자와 무용수 간 호흡이 돋보였던 작품이었다. 두 번째 작품은 김홍영 안무의 '몽상'으로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의식의 흐름 속에서 자아를 찾아가는 과정을 꿈속의 상상처럼 몸으로 보여줬다. 세 번째 작품 '환상방향'은 최민금의 안무로 앞으로 나아가는 것만이 해답인 세상 속에서 제자리걸음을 하듯 머무르고 있는 현대인의 모습을 무용수들의 시선으로 풀어내었다. 네 번째 작품은 김인희가 안무한 '혼돈'이었다. '혼돈'은 내가 바라보는 나와 타인의 시선 속에 나는 과연 같은 모습일까? 라는 의문을 가지고 나를 찾아 헤매는 듯한 남녀 두 무용수들의 '혼돈'스러운 몸짓이 인상적이었다. 마지막 작품은 천사의 그늘, 악마의 속삭임 속에서 끊임없이 강요당하는 수많은 '선택'들을 몸으로 재해석 하여 그 고통과 환희를 무대 위에 그려낸 박종수 안무의 '선택'이다. 다섯 작품 모두 개성 가득한 작품들로 가지고 있는 메시지를 전달하기에 충분하였고, 부드러우면서도 강렬한 안무들로 구성되어 관객들의 뜨거운 반응을 이끌어 내었다.



대구시립국악단의 퓨전국악콘서트

한국을 대표하는 국악단이자 전통성과 시대성이 조화된 균형 잡힌 공연감과 음악의 재해석을 통해 새롭고 색깔 있는 우리 문화와 환경을 만들어 지역문화의 발전을 선도하고 있는 대구시립국악단(총감독 이현창, 연출 양성필)의 7번째 퓨전국악콘서트로 4명의 협연자 이광호(바이올린), 민정민(가야금 병창), 김은비(가야금 병창), 박희재(모듬북)와 함께 풍성한 공연이 펼쳐졌다.

입고출신 入古出新

입고출신(入古出新)은 "고전(古典, classic)으로 들어가 새것으로 나온다."라는 뜻으로 우리 전통의 국악에 새로움을 더한 창작국악을 만날 수 있는 무대를 뜻함과 청룡홀의 재개관을 축하하는 의미가 더해진 공연이었다. 1부는 퓨전양상블과 중주곡으로 구성되었고, 2부는 무대 전체를 활용한 관현악 무대로 꾸며졌다. 바이올린, 가야금 병창과 함께한 관현악으로 퓨전국악의 매력을 느낄 수 있었고, 특히 마지막 무대였던 모듬북과 함께한 연주는 역동적 이면서도 화려한 퍼포먼스와 관현악의 경쾌함을 함께 느낄 수 있는 무대였다. 이번 퓨전국악콘서트는 색다른 단아함으로 때로는 푸근한 흥으로, 현대성과 역동성을 겸비한 콘서트로 관객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대구시립국악단 제7회
입고출신

달서문화재단
출범기념 특별기획전

여성, 예술을 말하다

글 · 사진 고재경(웃는얼굴아트센터 전시담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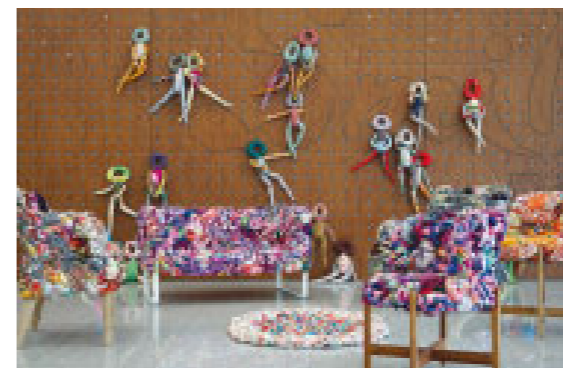
64

지역문화예술의 발전적 지원에 몰두하고 있는 달서문화재단의 출범 4주년을 맞아 진행되었던 이번 특별전은 주목할 만한 여성 작가 김소영, 김재경, 이지영, 이효연, 정민제, 정유지, 최은정, 허지안 등 8인의 작품을 지역민에게 선보였다. 여성 작가의 삶을 바라보는 시선을 담은 이번 전시는 지난 4월 17일부터 5월 19일까지 진행되었으며, 전시 기간 동안 여성 특유의 섬세함과 여성 작가의 시선을 공유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배경 | 최은정 - 여성, 예술을 말하다展, 웃는얼굴아트센터 갤러리, 2018

오직 8인의 여성 작가로 이루어진 전시는 갤러리 안과 밖을 중심으로 회화와 사진, 설치로 꾸며졌다. 이번 전시에서 **김소영** 작가는 2009년부터 인체형상을 이용하여 작업을 하여 왔으며, 이를 통해 사람 간의 소통과 관계를 이야기한다. 천에 바느질로 한 땀, 한 땀 만들어낸 인체형상들이 의자와 방석으로 재탄생하여, 구현했다. **김재경** 작가는 회화와 설치를 통해 산책자를 조형한다. 색이 있는 투명한 아크릴 판을 커트해 산책자들을 만들고 일일이 낚시줄에 매달아 설치했다. 작가가 만들어놓은 다채로운 설치 작업에 그 공간 속을 거닐면서 관객들은 마치 산책자들의 숨을 거닐고 있는 것 같은 착각에 빠진다. **이지영** 작가의 작품에는 시멘트가 드러나는 햇빛은 건축에 사물과 자연이 포함된 풍경이 많이 등장한다. 사람은 없고, 풍경을 주시하는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질 뿐이다. 이번 전시에서는 그 연장선으로 모호함과 낯선 이미지를 통해 우리들의 상상력을 이끌어냈다. **이효연** 작가는 이방인의 눈으로 바라본 세계를 풍경으로 담아오고 있다. 작가가 사진으로 포착해둔 풍경을 토대로 생략과 왜곡, 다른 풍경과의 혼입으로 구성된 배경은 익숙한 일상 공간이지만 왠지 모를 낯선 감흥을 자아낸다. 다음으로 **정민제** 작가는 그동안 추상적이거나 드러나지 않았던 여성성을 작품으로 표현해왔다. 이 과정에서 패브릭과 바느질로 만들어낸 수많은 화분과 다양한 드로잉 등의 여러 분야를 통해 예술적 활로를 모색해왔다. 이번 전시에서는 30~40년의 시간이 담긴 담요들을 수집해 따뜻한 추억을 소환하였다. 반면, **정유지**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그릇에 물감으로 색을 칠한 다음, 공간에 설치하는데 여기에 음악이 더했다. 공간에 놓은 그릇을 통해 관람자는 숲과 하늘, 이 계절에 피고 지는 꽃, 흐르는 물과 깊은 웅덩이, 대지의 풍경이 연상되도록 유도하였다. **최은정**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무너질 듯한 공간을 상징하는 건축물들과 폐허가 된 낡고 오래된 건축물들을 그려냈다. 작품 속 이러한 모티브는 카프카의 『성』이라는 소설 속에 등장하는 환상적이고 기이한 의혹으로 가득 찬 성을 근원으로 하고 있다. **허지안** 작가는 여러 감각들 가운데 색채를 자신의 주요한 탐구 주제로 하고 있다. 그 연장선으로 이번 전시에서는 자연이나 일상에서 얻어진 감각적 경험들을 색채로 해독되고, 작품으로 발현하여 관람자들에게 색채의 향연을 선보였다.

전시는 갤러리와 로비, 두 공간을 활용해 펼쳐졌다. 갤러리에서는 회화와 사진, 설치 작업들을, 로비에서는 설치를 중심으로 한 입체 작품들을 선보였다. 도시를 산책하는 인물부터 무너질 듯한 공간을 상징하는 건축물과 폐허가 된 낡고 오래된 건축물까지 다양한 예술적 관점들을 작품을 통해 이야기했다. 우리 시대의 여성 작가의 작품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맥을 짚어보는 이번 전시를 통해 여성 미술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며, 동시대를 살아가는 여성 작가의 삶을 바라보는 시선과 미적 감각을 함께 공유하는 기회가 될 수 있었다.



김소영 - Exquisite Corpse(우아한 신체)
mixed media, 가변크기, 2018



김재경 - 산책
아크릴, 철, 펜, 가변설치, 2018

건축과 미술로 떠나는 세계도시여행 문화예술의 중심지 '프랑스 파리'

Paris & Chicago

건축도시 '미국 시카고'

글 · 자료 김경영(웃는얼굴아트센터 아카데미담당)

여름이 시작되는 6월, 여름휴가로 설레는 계절, 여름이 성큼 다가왔다. 여행을 계획하다 보면 시간 등의 여러 가지 제약으로 어쩔 수 없이 전략적인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하는 순간이 온다. 여러 나라의 맛을 찾아 떠날 수도 있고, 골치 아픈 일을 털어 내기 위한 휴식을 떠날 수도 있다. 하지만 한 번에 모든 것을 담으려 한다면 결국 많은 것을 놓치기 마련이다. 이번 여행 특강은 서희주 강사와 함께 '건축'과 '미술'을 테마로 '세계도시여행'을 떠났다. 세계 각 도시의 여러 공간과 그 속의 다양한 이야기를 듣고자 '세계도시여행'을 타이틀로 잡았다. 미학을 전공했으나 본인의 전공은 잡학이라고 소개하며 유머러스한 말씀씨로 수업을 풀어나가는 서희주 강사를 통해 세계 각 도시에 숨어있는 보물들을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문화예술의 중심지 '프랑스 파리'를 함께 거닐다

파리는 도시에 있는 건축물과 미술작품만으로도 대학원 한 학기 수업이 가능할 만큼 문화예술로 가득 찬 도시이다. 20개의 구역으로 나누어진 파리를 움직이는 동선에 따라 어떤 건축물들이 있는지 둘러보며, 그 건축물들이 미술작품에서는 어떻게 표현이 되었는지를 복합적이고 다양한 시각으로 도시 구석구석을 둘러보았다. 다음은 서희주 강사의 파리 강의를 스케치한 내용이다.

에펠탑 >>

“파리 7구역에 있는 에펠탑은 런던과의 경쟁으로 구스타프 에펠에 의해 건설된 철제 탑입니다. 당시 런던은 자국에서 개최된 만국박람회에 건물 전체가 유리로 된 건물을 선보였는데 이에 질세라 파리에서도 만국박람회를 개최하여 에펠탑을 통해 자국 건축기술의 건재함을 보였던 것입니다.”



“에펠탑이 지금은 파리의 랜드마크가 되었지만 지어질 당시에는 파리의 흉물로 취급받았으며 소설가 ‘모파상’은 에펠탑을 혐오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종종 에펠탑에 있는 카페에서 식사를 했다고 하는데 파리에 있는 카페 중 유일하게 에펠탑이 보이지 않는 곳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흉물 취급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흐르고 파리에서 활동한 작가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씩 에펠탑을 그렸습니다. 추상회화 작가 중 한 명인 로베르 들로네의 에펠탑입니다. 피카소보다는 훨씬 덜 난해하죠? 이해하기도 쉽구요. 아마 피카소였다면 에펠탑의 형태도 없었을지도 모르죠.(하하)”

프롬나드 플랑테 >>

“도시 곳곳의 영감이 되고 있는 ‘프롬나드 플랑테’는 파리 12구역에 위치한 폐선이 된 고가철도입니다. 4.7km의 정원으로 아름답게 재탄생한 곳이지요. 교량 아래 아치형 공간에는 젊은 예술가들의 가게들로 재탄생했습니다. ‘프롬나드 플랑테’는 도시재생으로 큰 의미를 가지며 이후 세계 각국에 벤치마킹이 됩니다. 뉴욕시 첼시구역의 폐 고가철도와 서울의 서울로7017 등이 있죠”

도시의 다양한 건축물의 건축 배경과 의미, 그리고 숨어있는 이야기에서 회화작품으로서의 의미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내용이 어렵지 않게 도시 하나를 깊숙이 감상했다는 느낌을 충분히 받았다. 마치 그 도시의 거리를 함께 걸으며 숨어있는 명소와 작품들을 하나하나 구경하고 있다는 느낌마저 들었다.

독특한 매력의 건축도시 ‘미국 시카고’로 이동

다음으로 가볼 도시는 미국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 ‘시카고’이다. 시카고는 ‘시카고학파 건축’이 있을 만큼 근현대적 건축에 굉장한 의미를 지니는 도시이기도 하다. 1871년 대화재에 휩싸이게 되는데, 이로 인해 도시의 1/3이 모두 불타버리고 도시 자체를 재건해야 하는 상황이 오며 이에 현대 건축가들이 모여서 도시를 회복시키기 시작했고 시카고만의 독특한 건물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면서 현재의 독특한 모습을 지니게 된다. 다음 역시 서희주 강사가 들려준 간략한 강의노트가.



Lake point tower & Marina city >>

“레이크 포인트 타워는 시카고의 대표적인 건물로 1968년 완성된 주거용 빌딩입니다. 곡선으로 지어진 아파트 발코니의 경우 하중을 견디기가 힘들어 타일이 가장자리부터 깨지기 시작하는 걸 쉽게 볼 수 있죠. 하지만 레이크 포인트 타워는 삼각형 모양의 세 모서리 부분을 둥글게 처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건물의 처짐 현상은 없습니다. 이는 1968년에 완공된 빌딩으로 당시 최고의 건축 기술을 자랑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리나 시티 건물 또한 시카고의 건축물 소개에서 가장 자주 등장합니다. 흔히 옥수수빌딩이라고 많이 불리는 이 독특한 빌딩은 1964년에 건설되어 현재까지도 혁신적인 디자인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시카고를 대표하는 건물 중 하나입니다. 건물 앞 강변에는 보트 승강장이 있어요. 시카고에서는 건물 앞 보트 승강장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매우 부유한 도시임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죠.”

서희주 강사의 설명을 통해서 시카고 건축물만의 독특하고 도전적인 디자인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건축적 요소와 특징에 대해 잘 살펴보는 계기가 되었다. 강사의 적절하고도 막힘없는 진행으로 수강생들 또한 정보를 받아 적기도 하고 사진을 찍기도 하며 강의에 몰입하는 모습들이었다.

우리가 도시와 건축을 함께 만나야 하는 이유

“우리가 왜 여행을 가서 건축물을 봐야 할까요? 도시는 늙기 마련입니다. 언젠간 낙후될 것이고 잊혀지는 공간도 생길 것입니다. 하지만 도시는 건축을 만나 재생이 되며 의미를 만들고 다시 사람이 모여들게 하여 활력을 찾아갑니다. 이것이 여행에서 건축물이 빠질 수 없는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하죠.”

‘왜 건축물을 통해 세계의 도시들을 둘러보는가?’에 대한 서희주 강사의 명료한 설명으로 강의는 마무리되었다. 이번 특강을 단순히 주요 여행 관광지 소개 정도로 생각했다면 큰 오산이다. 그저 감탄하고 쉽게 지나칠 수 있는 아름다운 도시의 건축물에는 사실 저마다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었다. 그 숨겨진 이야기들을 함께 듣고 나누며 감상했을 때 더 깊이 있게 도시를 이해하고 충분히 여행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여름의 시작점, 예술로 가득 찬 도시여행을 통해 안목을 일깨워주는 예술인문특강에서 마음의 영감을 채워 나가길 바란다.



Chicago

웃는얼굴아트센터 청룡홀 재개관하다

글· 사진 최용석(웃는얼굴아트센터 공연지원팀장)

웃는얼굴아트센터는 2004년 10월 첨단문화회관으로 개관 이후 다양한 공연과 행사 등으로 달서구 문화의 중심으로 자리 잡아 오면서 2013년 별관 건립으로 클래식 전문공연장, 갤러리 등을 갖추었고 2014년 (재)달서문화재단의 출범 이후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면서 달서구 문화의 전당을 넘어 대구문화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2017년 개관 13년이 지난 노후화된 공연장의 시설 개선 사업을 진행해오면서 전국문예회관 연합회 리모델링 컨설팅 용역 및 전국 우수 공연장 시설 벤치마킹 등 사전 준비를 하고 지역발전 특별회계 예산 32억을 지원받아 2017년 1월 리모델링 세부 계획 수립을 시작했다. 설계용역, 각종 감사, 입찰공고, 건축·무대 등 10여 개 부문의 공사와 객석의자 구매설치 등 1년 4개월여의 과정을 거쳐 2018년 4월 27일 재개관 기념공연을 성공리에 마쳤다.

주요 리모델링 실적(내용)으로는 건축 분야에서는 객석의자(455석) 교체, 객석바닥 복미산 원목마루시공,

건축음향을 고려한 객석 벽면교체, FOH(객석후미조정실)신설 등으로 한층 더 안락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으며, 객석의 잔향 개선과 울림 증가를 통한 클래식 공연의 질을 한층 업그레이드하였다.

리모델링 공사 후 새롭게 선보이는 청룡홀의 첫 얼굴인 로비를 로비 벽면 교체 및 인테리어, 안내데스크 교체로 예술적 분위기가 가미된 품격공간으로 꾸며졌으며, 남·여 대기실의 확장(13㎡ ⇒ 46㎡)으로 많은 출연자도 수용할 수 있는 안락한 대기실 공간으로 마련하였다.

무대 분야에서는 기계시스템을 안정성이 우수한 원치 타입으로 교체했고, 무대사이즈에 맞는 더욱 넓어진 음향반사판의 교체로 공연 시 음향이 몰라보게 좋아졌음을 느낄 수 있다. 특히 음향, 조명 분야로는 확성, 영상시스템, 조명시스템의 장비를 최신·최적의 수입 장비로 교체, 신설해 중규모의 공연장으로는 가장 좋은 최신 시스템을 구비하게 되었다. 이 외에 전기, 통신,



소방, 기계 등의 마감기구 등 보이지 않는 시스템의 소프트웨어도 전면 교체해 공연 시 새롭게 달라진 음향과 조명, 무대 시설을 연주자와 연출자, 감독은 물론 관객의 눈과 귀까지도 만족도를 높여주고 있다.

숙원사업이던 청룡홀 리모델링을 통한 노후시설개선으로 무엇보다 편안하고 안락한 문화공간을 공연자와 관객에게 제공할 수 있음을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구민들이 찾고 싶은 공연장으로 거듭나며, 완성도 높은

우수공연 유치와 대관공연 활성화에 기여하고 안전 사고 방지와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해 명실상부한 대구 제일의 명품공연장으로 자리매김하는데 웃는얼굴아트센터 직원들 모두 노력하고자 한다.

청룡홀 리모델링 기간 동안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또 멋진 공연장으로 변신할 때까지 묵묵히 기다려주신 관객분들께 진심 어린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다.

품 목	제조사	모델명	수 량	
무대 음향	야마하	YAMAHA CL5	1	
		YAMAHA QL5	1	
	D&B	J-12	8	
		J-SUB	4	
		M4	4	
		MAYER	UPM-1P	4
CD 플레이어	DANON	DN-D4500MK2	2	
마이크로폰	SHURE	ULXD UR2	14	
무대 조명	MARTIN	바리라이트 VLZ	8	
	ROBE	스파이더	10	
	MA	MA2	1	
무대 기계		음향반사판(천정)	14,400L, 13,770L×3,600W	2
		음향반사판(측면)	3,600L×7,800H, 7,300H	4
		음향반사판(정면)	14,400L×7,000H	1
	와트(독일)	구동부	0.4~11kW	39
	부원	제어프로그램	스테이지 큐	1

청룡홀에 새로 들어온 친구들(기기사양)

행복충전소 ‘달서가족문화센터’ 개관

글·사진 박영빈(달서가족문화센터 운영지원팀장)

72



달서 구민 모두가 항상 웃는 얼굴로 살아가는 밝고 멋진 달서

가족 서로 믿으며 의지하고 살면서 나의 빈자리를 채워주는

문화 내 삶을 더욱 풍요롭게, 인생을 더욱 아름답게

센터 인정 넘치는 따뜻한 행복 공간



+ 66 가족과 함께하는 또 다른 내 집 99
‘달서가족문화센터’입니다

새로운 ‘가족’의 탄생

‘이제 곧 문을 연다는데, 어떤 곳일까?’ 유리문 위로 두 손 모아 눈을 가까이 대고는 아직은 불이 켜지지 않은 어둠 속을 투시라도 하듯 이리저리 살핀다. 도로가 한 모퉁이에 곧 개관을 앞두고 아직은 문이 굳게 닫힌 한 건물을 오며 가며 이리저리 둘러보는 사람들의 모습이 심심찮게 발견된다. 이 건물의 정체는 바로 ‘달서가족문화센터’. 한샘초등학교 옆이자 월배 힐스테이트 맞은편에 위치한 달서가족문화센터는 달서구청이 지난해 1월, 96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건립공사를 시작했다. 그 후 1년여 만인 올해 2월, 부지 1천288㎡, 연면적 4천 269㎡ 규모의 지하 1층, 지상 4층 건물이 탄생했다.

완공된 건물의 모습이 보이고 나서는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에 개관일을 기다린다는 글들이 속속들이 올라오기 시작했다. ‘우리 집 앞이라 너무 반갑네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기대됩니다.’ 등 새 문화 공간에 대한 주변의 관심을 눈으로 느낄 수 있었다. 개관 이후 이들이 누리게 될 공간으로는 지하 1층 주차장에서부터 1·2층 구립도서관, 3층 유아놀이방, 컴퓨터실, 홈 소잉실, 커뮤니티실(카페), 무용실과 2개의 강의실, 4층 요리실과 상담실, 2개의 강의실과 135석의 소공연장이 기다리고 있다.

73

생일을 축하합니다

달서가족문화센터는 지난 4월 12일 개관식을 가졌다. 2018년 4월 12일이 생일이 된 셈이다. 3월말까지 센터장, 운영지원팀장, 회계 담당, 문화강좌 담당, 보육 담당 총 5명의 직원을 구성하고 업무를 시작하면서 한 달여 동안 개관식 준비에 박차를 가했다. 개관식 날 아르스노바 중창단의 축하를 시작으로 국민의례, 내빈소개, 경과보고, 감사패 전달까지 무사히 마치고 달서문화재단 이사장이신 이태훈 구청장의 기념사가 이어졌다. 이 날을 기념한 시루떡 커팅에 이어 시설 관람까지 모든 일정을 무사히 마쳤다.

실속 문화공간인 달서가족문화센터는 달서구에서 인구가 밀집된 월배 신도시 내에 가족 단위로 교육, 문화, 여가 활동 등을 즐길 수 있는 복합 시설이 부족함에 따라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건립되었다. 가족 간의 정을 되살리고 이웃과 함께 어울려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통하여 가족공동체 형성,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소통의 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겠다는 것이 기본 설립 취지이다. 이에 따라 달서구청은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지난 2월, 재단법인 달서문화재단에 위탁 운영하기로 했다.

날마다 행복, 골라 듣는 재미

개관 이후로도 주민들의 문익은 이어졌다. 언제쯤 수업을 들을 수 있는지였다. 이들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5월 한 달 동안 20여 개의 문화 강좌를 시범 운영하였다. 문화 강좌의 경우 가족 참여, 고급과정, 실용 특화, 구민맞춤, 영아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나뉘어 관련 강좌를 개설하였다. 고급과정에는 보다 전문성 있는 강사 기용을 통하여 가곡과 한국무용을, 실용 특화는 센터 내 요리실 등을 적극 활용하는 차원에서 쿠킹, 바리스타, 홈 소잉, 컴퓨터, 외국어 5개 분야를 선정하여 세부 프로그램을 차별화하고자 했다.

특히 같은 달, 개관을 기념한 '135 스페셜 시리즈'를 마련해 소공연장 객석 수인 135인을 위한 강연과 공연도 마련했다. '가족'을 주제로 소아정신과 의사 서천석 행복한아이연구소장을 초청해 '우리



아이 이해하기'에 대해 들어보았고, 대통령의 글쓰기 저자 강원국 작가는 '글쓰기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알렸으며, 온 가족이 참여 가능한 가족콘서트는 전석 매진을 기록했다. 마지막 주 수요일이었던 5월 30일 열린 가족콘서트는 오페라 아리아와 뮤지컬 넘버, 영화 OST로 구성된 곡들로 가족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았다.

여름학기 정규과정 Ready, Set, Go!

5월 시범 운영 이후 6월부터 본격적인 여름학기 정규과정이 시작되었다. 12주 과정 주 1회 1시간 수업을 기본으로 하여 특히 가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주안점을 뒀다. <가족 참여> 프로그램으로 쿠킹과 코딩, 드론 등 부모와 함께 듣는 프로그램을 개설함으로써 가족 간 소통의 시간을 마련코자 했다. 7, 8월에는 1차례씩 135석 규모의 소공연장 활성화 차원에서 마련한 <특별기획>으로 '가족' 관련 특강 '스페셜 렉처'와 공연 '스페셜 데이'를 진행한다.

'스페셜 렉처'의 경우 7월 20일(금) 오후 2시 동국대학교 식품생명공학과 교수 금나나가 출연한다. 미스코리아 진 출신이자 하버드대를 졸업한 것으로 잘 알려진 금 교수는 부모들의 관심사인 교육에 대한 주제로서 '누구나 공부 잘하기'를 통해 화려한 이력 이면의 남다른 노력을 전한다. 또한 '스페셜 데이' 8월 29일(수) 저녁 7시 30분에는 매마수(매달 마지막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을 맞아 온 가족이 관람 가능한 가족콘서트를 준비함으로써 현악양상블 감상이 가능하다.(참가비 1인 5천원, 문의 : 053-632-3801)

달서가족문화센터는 앞으로도 가을학기 개편을 통해 강좌 종류와 수를 점차적으로 늘릴 계획이다. 우리는 살면서 언제나 행복하기를 희망한다. 그 삶 속에서 가족은 내가 믿고 의지하는 존재이다. 달서가족문화센터는 이름처럼 '가족'을 위한 문화공간이기도 한 만큼 어떤 형태의 가족이든 우리 센터가 그들의 또 다른 가족으로서 행복 충전소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Art event

cultural art

performance

'문화만개'에 실리는 단신은 웃는얼굴아트센터에서 진행된 축제 및 공연, 전시 등 달서구에서 펼쳐진 다양한 문화예술 행사를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exhibition

01

2018 장미꽃 필(Feel) 무렵

'2018 장미꽃 필(Feel) 무렵'이 지난 5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내 인생의 화양연화'를 주제로 이곡장미공원에서 열렸다.

첫째 날 5월 11일 오후 7시, 많은 관객들이 모인 가운데 '2018 장미꽃 필 무렵' 콘서트를 시작으로 축제의 막이 올랐다. 여성 타악 퍼포먼스팀 '도도'의 파워풀한 5고 합주 공연이 첫무대를 장식했다. '링다 플로레스타'의 흥겨운 브라질 삼바 재즈 파티와 뮤지컬 넘버와 댄스로 화려한 무대를 연출한 '드림뮤지컬'이 이어졌고, 대한민국 대표 포크그룹, '자전거 탄 풍경'이 등장해, 영화 '클래식' OST 등 히트곡으로 콘서트의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아띠 앙상블

라 퍼커션

피아니스트 최훈락 & 드러머 정효민

둘째 날 12일(토) 오후 1시, 장밋빛 고운 드레스를 입은 여성합창단 '아띠 앙상블'이 등장해 사랑과 행복이 담긴 동요와 가곡으로 관객들과 함께 호흡을 나누며, 어릴 적 향수를 불러일으켰다. 이어서 오후 2시, 비가 내리는 장미공원에 브라질 음악과 문화를 전파하는 '라 퍼커션'의 북소리가 장미공원 전체에 울려 퍼졌다. 파워풀하고 리드미컬한 연주로 장미공원 전체를 활보하며 관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오후 3시, 피아니스트 최훈락과 드러머 정효민이 웃으며 등장했다. 섬세함과 카리스마의 조화가 돋보이는 최훈락 피아니스트와 정열과 절제를 겸비한 정효민 드러머가 낭만 가득한 음악여행으로 관객들의 감성을 흔들었다. 공연을 지켜보던 작은 꼬마소녀의 즉석 피아노 공연으로 관객 모두 감탄하였다. 누군가에게 추억을 누군가에게 기억을 남긴 아름다운 무대였다. 토요일 마지막 무대는 'IN THE PARTY(인더파티)'의 자유롭고 즉흥적인 재즈 공연으로, 팀원들의 탄탄한 호흡 위로 흐르는 정교하고 파워풀한 섹션의 사운드와 재즈보컬로 관객들과 함께 호흡하며 즐기는 핑크 파티의 현장을 방불케 했다.



아멜모

피브로 듀오

봉덕 브라더스



트릭아트 퍼포먼스
영화 속 인물을 표현한
장미공원의 움직임은 그림

축제의 마지막 날인 13일, 오후 1시, '아멜모'의 흥겨운 색소폰 연주로 축제의 시작을 알렸다. 아멜모는 지역에서 20년째 활동하는 직장인들로 구성된 아마추어 단체로 재즈와 신나는 트로트를 선사해, 남녀노소가 함께 환호하며 신명 나는 댄스 파티로 한참 동안 열기가 이어졌다. 햇볕이 가장 뜨거운 2시, '피브로 듀오'의 재 활용악기 퍼포먼스가 시작되었다. 일상의 사물들을 타악기로 활용해 누구도 흉내 낼 수 없는 독특한 리듬을 들려주었다. 버려지는 것들도 아름다운 악기로 재탄생 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무대였다. 축제의 열기가 한창이던 오후 4시, '봉덕 브라더스'가 등장해 '장미꽃 필(Feel) 무렵'의 마지막 무대를 장식했다. 시원한 음색의 보컬이 부르는 <장미의 미소>를 시작으로 <첫인상-김건모>, <알 수 없는 인생-이문세> 등 흥겨운 노래와 리듬으로 관객 모두가 하나 되는 순간이었다.

사랑과 추억이 가득한 '장미꽃 필(Feel) 무렵'은 모든 시민들이 함께하며 사랑받는 달서구의 대표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2019년, 또 다시 장미 내음과 함께 찾아올 '장미꽃 필 무렵' 축제를 기대해 본다.

글 · 사진 | 김효진(문화정책실)

02

2018 열린미술체험마당

2,000명에 달하는 시민들의 열기가 야외공연장을 가득 채웠다.

웃는얼굴아트센터 광장 및 야외공연장 일대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된 '열린미술체험마당'은 어린이와 가족들을 위해 매년 봄, 가을 두 차례 개최되고 있다.

'열린미술체험마당' 프로그램도 매년 조금씩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진화하고 있다. 올 봄에는 한국화 그리기와 도자기 만들기, 판화기법 활용 캐릭터 티셔츠 만들기, 탈 만들기, 비즈공예, EVA 폼아트, 생활용품 동물가방 만들기, 페이스 페인팅, 피리 만들기, 나무공작, 솟대 만들기, 작은 미술대회 등 다양한 구성으로 가족 단위의 많은 방문객들이 함께 체험하는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예술가로 활동하는 전업 작가들로 구성된 체험 강사의 진행을 통해 예술가와 일반인들의 만남도 자연스럽게 이뤄졌다. 이번 미술체험의 체험료는 무료, 재료비는 각 2천원으로 마련돼, 부담 없는 체험마당으로 부스마다 장사진을 이루었다. 많은 방문객(참여자들)의 성원과 관심으로 올 가을, 10월 14일(일) 다시 한번 '열린미술체험마당'을 개최해 어린이와 어른이 함께 어우러지는 일상의 예술을 나눌 예정이다.



글 · 사진 | 고재령(웃는얼굴아트센터 전시담당)

웃는얼굴아트센터
여류100호 회 초대전

“Passion”

여류
100호 회

- 2018. 7. 17 TUE ~ 7. 29 SUN
- 웃는얼굴아트센터 갤러리
- 주 최 : (재)달서문화재단 웃는얼굴아트센터

kakaotalk



웃는얼굴아트센터

이제 카카오톡에서도 웃는얼굴아트센터를 만나보세요
푸짐한 할인혜택과 다양한 이벤트가 친구를 기다립니다

친구추가는 이렇게 하세요!



- 1 카카오톡 실행
- 2 상단 검색창 터치
- 3 검색창에 ID 입력

